



민간 통일운동 탄압규탄!



▲ 624일 서울중앙지검이범민련 지도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적단체가입·특수잡입 탈출·화합통신·찬양고무 등 범민련탄압 공대위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음.

· 목 · 차 ·

우리의 주장 권호현 • 2 / 통일원로를 찾아서 · 윤한탁 선생님 김양희 • 6 / 기고 · 대법원, 삼성재벌과 공범입니다. 김성환 • 10 / 특별기고 장민호
• 13 / 회원미팅 · 광주 5.18항쟁 참가기 · 이용준 • 18 / 슬픈일이 있었어요 · 한백렬 선생님 • 20 / 슬픈일이 있었어요 · 김중하 선생님 • 21 / 감옥에서 온 편지 최용근 외 • 22 / 산행기나순석 • 31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32 / 이런일이 있었어요 • 34 / 재정 보고 • 49 / 화비를내주시 분들 • 50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1690-141

전화 : (02) 874-4063 전송 : (02) 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uo.or.kr 이-메일 : yangsimsoo@gmail.com

9.19공동성명에 반하는 한.미.일의 대북고립압살정책

- 6.15 104선언 역행하는 이명박정부의 반민족 외세공조책동 -

권오현 |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유엔안보장이사회(안보리)는 12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2차 핵실험을 비난하고 징계하기 위한 이른바 대북제재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채택했다.

미국과 일본이 초안했고 지구상의 핵무기와 그 실험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corea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2단계 조치를 결정적으로 회방했으며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받고 있는 한국과 일본 등 7개국의 밀실협상으로 마련된 이 제재안은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제재를 골자로 하는 전문과 3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2006년 채택된 1718호에 비해 더욱 강력하고 구체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전문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으며 결의안 1718호와 지난 4월 13일 의장성명을 부당하게 무시하고 위반한 것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더이상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은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에 따른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제재안(1874호)은 무기금수와 수출통제조항에서 1718호로 결의했던 7대 무기류(탱크, 장갑차, 대포, 전투기, 공격용헬기, 전함, 미사일) 및 관련물자 부품과 핵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품목 등의 이북과 거래를 금지한 것에 비해 이북의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의 대외 수출금지 회원국들이 이북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무기(소형무기제외) 및 관련물자의 이전과 수출금지를 결의했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화물검색에서는 금지 물품을 적재하고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자국의 항구와 공항 등 자국영토에서 이북으로 가거나 이북에서 떠난 화물의 검색을 회원국들에 촉구했으며 특히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거쳐 검색 하도록 촉구했고 선적국의 동의가 없으며 적절한 항구로 유도 검색하고

금지품목이 발견되면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따라 압류 및 처분할 것을 결의했다.

마지막으로 금융 및 경제제재에서는 결의안 1718호 규정 외 회원국들이 이북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나 금융자산 자원이전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인도주의 목적이나 개발목적 비핵화증진 용도를 제외하고는 회원국이나 국제금융기관 및 대출기관이 이북에 새로운 공여나 금융지원 양허성차관 등을 제공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등 무기활동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다.

핵무기를 포함한 어떠한 대량살상무기도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되고 사용하거나 그것으로 위협해서도 안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량살상무기를 누구는 가져도 되고 누구는 가져서는 안된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 국제연합(유엔)은 두 차례에 걸친 제국주의 전쟁의 참담한 살육과 파괴를 반성하고 세계평화와 안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회진보와 정의실현 등을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주어진 의무를 다함에 있어 모든 회원국들의 주권 평등의 원칙에서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회원국들의 신뢰와 이행과정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했다.

그런데 유엔은 국제분쟁 해결 과정에서 언제나 목적과 원칙에 적합하지만은 않았다. 국제평화에 반하는 대량살상무기의 감축이나 폐기에 어떠한 구체적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핵무기 실험 및 보유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략과 살육행위에 입을 닫고 있었다. 이러한 유엔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어기고 핵을 가진 미국이 핵을 갖지 않은 이북을 상대로 이남에 핵무기 이전배치 핵우산제공과 핵선제공격위협 핵잠수함과 핵추진항공모함 핵공격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 북침전쟁연습을 설세없이 벌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못본체하고 있다. 그러한

핵선제공격위협으로부터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억지력으로 핵실험을 한 이북에 대해서만 잇달아 가혹한 제재를 결의했다.

유엔안보리제재가 공정하거나 정당하지 못할 때 실효성 부재는 물론 필연적으로 역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예로서 지난 4월5일 이북이 지구 인공위성<광명성2호>를 쏘아 올리자 유엔 안보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라며 이를 비난하고 안보리결의 1718호를 부활시키는 의장성명을 냈다. 그 뒤 이어진 제재와 대응의 악순환이 핵실험을 조장하는 역할을 했다. 유엔은 이북과 미국사이의 분쟁, 바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자위적 차원이 억지력확보라는 사태의 본질을 옳게 판단하여 정의와 평화를 위해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조정 해결해야 했다. 그렇지 못할 때 어떠한 특정국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들러리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는 이북의 정상적 국가 운영에 숨통을 조여 질식시키려는 매우 강력하고 국제사회의 통념을 깬 가혹한 조치이기도 했다. 수전.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을 물어뜯게 될 것’이라며 ‘그 고통을 느끼도록 오늘부터 발표된다’고 했다. 또한 지난 6월2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무부 부장관이 이끄는 미정부대표단을 맞아 이명박정부는 이북에 ‘참을수 없는 고통’을 주기위해 대북압박책을 제시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미.일 세 나라는 결의안 채택과 동시에 이를 지지하고 철저한 이행과 함께 독자제재를 다짐하는 성명을 냈다.

이러한 대북제재 결의가 한.미.일의 유엔의 이름을 빌린 대북고립압살정책의 산물이라면 세 나라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각기 더욱 가혹한 제재를 했거나 다짐하고 있다. 먼저 이명박정부는 지난 5월 26일자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할 것임을 발표하고 미국엔 공식문서를 전달했고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북의 조선광업 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 중단 등 6월 1일자로 이행에 들어갔다. 또한 이른바 ‘슈퍼노트’라는 위조지폐가 이북에서 제작된 과학적근거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버젓이 말하고 있다.

미국은 강력한 금융제재로 이북지도부의 돈줄을 쥔

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조지폐 마약 밀수 등을 찾아내고 방코 델타 아시아(BOA)은행 동결사례를 들면서 6자회담국 순회 정부대표단에 그 주역이었던 스튜어트.리비 재무부차관을 넣어 한국은행 등을 방문하는 등 주권침해 행위를 하면서 한국일본과 손잡고 결정적 타격을 줄 금융제재를 다짐하고 있다. 또한 테러지원국 제지정과 빈틈없는 화물검색, ‘슈퍼노트’의 이북제작설을 끊임없이 흘리고 있다. 일본은 이북선박의 화물검색을 위한 국내법 정비에 착수하고 ‘적기지 타격 능력보유론’을 말하는가 하면 대북수출입전면금지를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북압박의 한미공조는 오는 16일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절정에 달할 것이다. 지난 6월 6일 서울과 파리 워싱턴에서는 이북을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똑같은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이명박대통령은 54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이북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한미연합 항공작전지휘통제부가 있는 오산공군 사령부를 찾아가 군복상의 자켓을 입은 모습으로 샤프 한미연합사령관과 만나 ‘한미협력을 잘하는 것이 전쟁을 억지하는 것’이라며 한미(군사)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직대통령이 작전사령부를 찾은 것은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에 앞서 김태영 합참의장과 오창관 공군작전 사령관으로부터 ‘북한군’ 주요동향과 대응태세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NL인근에 배치된 경비정의 함장과 F-15K 편대장과 잇따라 통화를 한 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파디로 대통령이 이런 모습으로 뉴스화면에 비친 것은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살벌함마저 갖게 했다. 마치 ‘도발’을 기다리기라도 하려는 듯 그리하여 곧바로 응징하고 승리로 작전을 종결시키겠다는 군사령관 모습 그대로였다.

한편 노르망디 상륙작전 6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한 버락.오바마 미국대통령은 니콜라·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동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지난 수개월간 행동은 엄청나게 도발적이었다. 도발에 대해 보상하는 정책을 계속할 생각이 없다. - 내가 선호하는 것은 외교적 접근방법이지만- 상대가 따라오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선기간 ‘적대관계 지도자들과도 직접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던, 부시정권과의 차별성은 취임 반년이 지났어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16일 한미 정상회담 사전조율을 위해 방미 중인 유명한 외교통상부장관과 힐러리클린턴 미국무장관회담 소식이 전해졌다. ‘한미 두 나라가 유엔의 대북제제와는 별도로 북한의 돈줄을 죄는 강력한 금융제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의 핵우산 제공도 명문화 하기로 했습니다(KBS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보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합의할 대북추가제제조치의 핵심은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자금원차단’과 ‘마약과 돈세탁 위조지폐 등 불법행위에 대한 금융제제’라고 했다. 유명한 외교통상부장관은 특파원들과 만나 ‘두 나라 정상은 핵우산제공을 보다 구체화한 확장억지력 (extended deterrence)개념을 공동성명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확장억지력’은 핵우산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에 의한 억지력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이라면서 ‘중전의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이를(확장억지력) 선언한 적은 없었다’고 무슨 외교적 성과라도 낸 것처럼 말했다. 민족적 존엄도 주권국가의 자존심도 저버리고 동족을 응징하는데 외세와 공조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한·미 양 대통령과 그들이 만나 합의할 사항을 조율하는 한·미 외상들의 대북강경자세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제와 독자제제를 예비하고 있었다.

한·미·일이 주도하여 만들어 낸 안보리 대북제제는 이북에 대한 철저한 봉쇄와 차단이었다. 주권국가의 국제관계법에 따른 무역거래와 금융거래 등을 물샐 틈없이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제는 사실상의 PSI의 전 유엔 회원국에 강요하는 조치이며, 정상국가를 목을 죄어 질식시키려는 대국주의의 해적행태였다. 핵이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위에서 말했었다. 그러나 왜 핵실험을 하게 되었는지는 당사자 말을 비롯한 객관적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5일 이북은 지구인공위성<광명성2호>를 운반로켓 <은하2호>로 쏘아 올렸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앞으로 실용위성발사를 위한 과학기술문제해결을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이명박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위반이라 했고 국

방부는 전군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체코방문에서 ‘탄도미사일 기술개발과 확산이 국제평화 안전에 위협’이라며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 했으며 일본은 인공위성발사 35분만에 유엔 안보리 긴급소집을 요구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는 14일(뉴욕시간 13일) ‘4.5 북 인공위성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성명은 북의 위성발사를 ‘비난한다(condemn)’면서 ‘이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이라고 했다. 이북에 대해 1718호 8항상의 의무이행과 추가발사중단을 요구하고 회원국들에 1718호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바로 대량살상무기(WMD)프로그램 관련품목과 일부재래식 무기, 사치품 수출통제와 이북의 WMD프로그램관련 자금과 금융자산 동결 및 관련인사 여행제한, 화물검색 등 대북제제를 이행하고 30일 이내에 제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위원회는 24일 인공위성관련 이북의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를 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북은 인공위성<광명성2호>를 발사하기 앞서 지난 2월16일 미국 등에서 일고 있는 미사일 발사설에 대해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이라고 했고 (조선중앙통신) 2월24일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인공위성<광명성2호>를 운반로켓<은하2호>로 쏘아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12일 역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광명성2호>를 발사하기 위한 준비사업으로 국제민용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수(IMO)등 국제기구들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해 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했다. 또한 한.미.일 등에서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발사하면 유엔안보리의 제제를 하겠다고 잇달아 경고하자 이북의 외무성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이든 공보문이든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에 대한 단 한마디라도 비난하는 문건은 물론 상정취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대한 난폭한 적대행위’라며 ‘유엔안보리에 상정되는 순간 6자회담은 없어지게 될 것이며 조선반도 비핵화를 향하여 지금까지 진척되어온 모든 과정이 원상상태로 되돌아가게 되고 필요한 강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이 있자 바로 그날(4.14)이북은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면서 o자주적인 우주이용권리행사를 계속하고 o6

자회담 불참과 경수로 발전소 건설적극검토 o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했다. 그리고 4월 24일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인공위성관련 이북의 조선광업 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 이북은 외무성 성명을 내어 '유엔안보리가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자위적조치를 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고 '경수로 발전소건설을 결정하고 그 첫 공정으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우라늄 농축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북의 인공위성발사 뒤 진행된 과정을 보면 유엔안보리는 역설적으로 2차 핵실험을 불러온 역할을 한 셈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미일의 특히 미국의 대북고립압살정책이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짓밟고 6자회담 자체를 해체한 셈이다.

'2차핵위기' 이후 corea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열리고 9.19공동성명과 2.13 10.3선언으로 이어지는 과정 또한 '제재'와 '대응'의 악순환으로 일관되었다. 예로써 9.19공동성명이 잉크로 마르기도 전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돈세탁 우려은행>지정과 2500만달러의 이북예치금 동결을 비롯하여 시리아에 대한 핵확산문제 우라늄 농축문제 핵시설 검증문제 등으로 공전을 거듭했었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6차 6자회담 13차 수석대표회의에서 9.19 공동성명과 2.13 10.3선언에 따른 2단계 조치가 마무리되고 3단계로의 새로운 출발이 예고되었지만 핵시설 검증문제가 끝내 발목을 잡아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측은 핵시설 불능화 관련 영변원자로의 가동일시 전달(5.10) 핵시설신고(6.26) 냉각탑폭파(6.27) 등 비핵화진척의 의지를 보였지만 다른 다섯 나라는 에너지지원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쟁점이 되고 있었던 핵시설 검증문제로 의견이 갈렸다. 2008년 7월 11일 수석대표회의에서는 검증으로 시설방문,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하는 것으로 합의했었지만 한.미.일은 굳이 시료채취를 주장했었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에서는 남측이 북.미사이의 주장에 중재조정역을 했었지만 이명박정권에서는 남측이 일본과 함께 6자회담의 '핵방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것은 남측이 제시한 <검정의정서 - 경제.에너지지원연계론>을 들고 나

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변화 없는 대북적대정책 때문이었다.

예상대로 이북은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가 있고 곧바로 이를 규탄 거부하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외무성 성명은 '이제와서 핵포기란 있을 수 없는 일로 되었다'며 미국과의 전면대결이 시작된 현단계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1.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 무기화 2. 우라늄 농축작업착수 3.봉쇄를 시도하는 경우 전쟁행위로 간주 단호히 군사력으로 대응한다'고 했다.

마치 선로의 한 지점을 향해 마주 달려오는 기관차 모양이다. 3차 핵위기라고도 한다. 제동장치없이 달려오는 두 기관차는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어있다. 막아야 한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핵전쟁으로 이어질 충분조건을 갖고 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위기를 몰아온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2000년에 있었던 조 · 미 공동코뮤니케로 돌아오는 데 있고 9.19공동성명을 이행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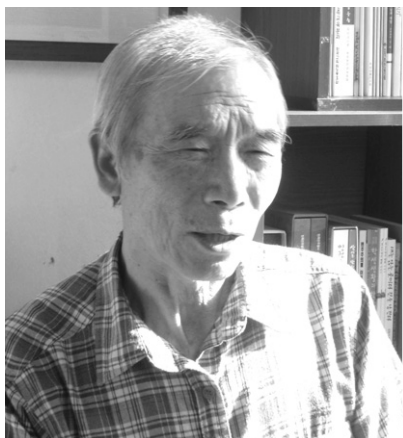
이처럼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긴박한 정세 속에 16일부터 한 · 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실제로 남북관계 파탄은 말할 것도 없고 북미 관계를 이렇게 몰아오는데 이명박정부의 책임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정권에서는 부시의 대북 강경정책에서도 위기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중재 · 조정 역을 했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북에 대해서는 '비핵 · 개방 3000' 주장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한 · 미동맹강화의 길로 가면서 6자회담을 비롯한 한미 합동군사연습, 인권문제 등 동족을 적으로 한 미국과의 공조체제로 일관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떠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은 생뚱맞게도 '북을 뺀 5자회담제의'를 하는가 하면 사전조율에서 이른바 '확장역지력' 문서화, 한미동맹미래비전 강력한 금융제재 등을 말해오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생각한다면, 주권국가로서의 자주권과 전민족의 평화와 안정을 생각한다면 오바마 정부의 부당한 대북적대정책포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역지력 등을 거부해야 할 것이다. 또한 Corea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는 6.15, 10.4선언정신에 따라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몇몇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다.

몸이 움직일 때까지 통일, 사회진보운동 할 것

-윤한탁 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경기북부진보연대 대표, 교육문화공간 '향' 대표-

김양희 | 통일뉴스 기자, 회원



이제시대 독립운동을 한 담임선생님을 참 좋아하던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자라 대학 졸업 후 선생님이 됐고, 존경하던 선생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누구 보다 아이를 사랑하고 교육계의 부당한 권위들에 맞서 평생을 싸웠다. 그러나 교육 문제는 단순히 학교에서만 끝날 일이 아니라 민중들과 함께 민족의 이익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퇴직 후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누구보다 열심히 투쟁하고 있다. 그리고 그 투쟁은 앞으로도 쭉~ 계속 될 예정이다. 이는 바로 윤한탁 선생의 이야기다. 평생을 교육개혁을 위해 싸우고 지금은 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경기북부진보연대 대표, 교육문화공간 '향' 대표 등을 맡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를 지난 5일 교육문화공간 '향' 사무실에서 만났다.

'부모 같던 담임선생님 영향 커'

윤한탁 선생은 해방되던 해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회고했다. 그의 담임선생님은 독립선언서, 동경대학생 독립선언 등에 관여하는 등 일제시대에 숨어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으

로 해방된 공간에서 교육을 담당하겠다고 해 교사가 된 분이였다.

“경남 산청에서 태어났는데 둘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왜 그리 코를 많이 흘리고 때가 많았는데, 그 시골에서 코 흘리고 있으면 닦아주고 때가 잔뜩 묻어 있으면 직접 씻어주는 선생님이 아버지처럼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담임선생님은 인민위원회가 탄압받을 때 학살당했다고 한다. 해방이 되고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지역 인민위원회가 생겼고 그 시절, 민족주의자, 독립운동가, 사회주의자 등 선진적 사상과 진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인민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이들은 뒤에 탄압을 받아 살기 위해 산으로 도망을 갔다. 그의 고향에서도 지역의 존경받는 학자 등 수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을 가 빨치산이 되었고 이즈음 그의 선생님이 학살을 당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선생님은 윤한탁 선생이 “지금도 그분처럼 교육을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에게 애정을 쏟았던 분이셨다고 한다.

“그 선생님은 몸에 직접 쿵을 심어 쿵이 움트는 것부

터 수정, 열매를 맺는 것을 1년 내내 직접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또 아이들을 개울에 데려가 물고기가 헤엄을 치는 원리를 실제 사물을 보며 설명을 해줬습니다. 제가 교육계에 들어오고 한참 후에야 시정각교육이라고 해 이런 교육들이 시도됐는데 선생님은 벌써 전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뿌리 깊은 군국주의에 늘 반발’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학교교육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게 됐다고 한다.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반항을 하고 이에 처벌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 장교 앞에서 나무로 만든 총과 칼을 들고 군사교육을 받곤 했습니다. 또 상급생에게 하급생이 인사를 하지 않으면 폭력을 일삼는 등 권위적이고 상하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친일과가 많은 등 군국주의 요소가 커 교문을 들어갈 때 부터 억압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저는 반항적인 역할을 도맡아 담임선생님에게 대들다 처벌도 많이 받았습니다.”

1960년 그는 고려대학교 인문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그에게 대학도 별다를 게 없었다. 학문의 전당이 아닌 그저 친일교수가 판을 치고 양심과 자유가 없는 권위적인 공간일 뿐이었다.

“고대를 민족고대라고 하는데 민족은커녕, 김성수를 비롯해 친일교수가 많은 그곳은 생각했던 학문의 전당이 아닌 권위적이고 게으른 교수들이 가득찬 곳으로 실망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4.19가 일어났고, 그 역시 적극 참가했다. 대학 졸업 후 1964년 군대에 갔으나 군대에서도 일본 군대의 구호를 그대로 사용할 정도로 군국주의적, 반민주적, 억압적인 현실은 그대로 여서 최전방에서 근무하던 그는 철조망을 넘어 탈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바로 잡혀 사단사령부 영창에까지 다녀와야 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남들보다 긴 군대생활을 한 그는 오기가 나서 하사관에 지원을 하고 하사관생활까지 하다가 제대를 하게 됐다.

제대 후 언론계 사회운동을 하고 싶어 진주 경남일

보에 입사를 했으나 이곳 역시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지역 부패의 고리, 지역유지와 지역기관장들이 짜고 노는 곳이었다. 그는 언론사를 바로 그만두고 경남도 교육청 교사모집 시험에 합격, 1968년 처음으로 지리산 산청에 위치한 반성중학교에 발령이 났고 1970년 서울에 올라와 영등포여중에서 교편을 잡았다.

‘교육계의 부패 정도도 심각’

교사가 된 그는 늘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처럼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교육계도 크게 부패해 실망을 많이 했다고 한다.

“당시의 교장은 일제시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술만 먹으면 일본 노래를 곧잘 부르곤 했습니다. 당시 교장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관례여서 뇌물을 주지 않으면 담임 배정도 하지 않고 모두 싫어하는 일이나 겨우 시킬 정도였습니다. 발령을 받고 바로 선물을 하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차별을 하던 때인데 촌놈이 서울에 와 그런 관행도 모르고 선물을 하지 않았지요. 얼마 후 교장에게 결재서류를 가지고 갔는데 ‘이것이 무슨 서류냐’며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늘 어려운 일만 시키고 지적을 하길래 누님에게 고민을 털어 놓으니 누나가 선물을 가지고 가라해 밤에 찾아가 선물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은 다음날 바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1970년대에는 유신교육 시대로 학교는 철저히 군대 식이었다. 교장과 선생은 명령을 내리고 복종을 하는 관계로 인사권을 갖고 있는 교장의 지시에 조금이라도 반발을 하거나 바른 소리를 하면 심지어 지방으로 발령을 내기도 했다고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는 1990년대까지 이어져 이때도 수업하는 중간에 교장이 들어와 선생을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하곤 했다. 특히 당시는 통일과 민족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은 금기시 되는 일로 많은 교사들이 정부 기관에 끌려가곤 했단다.

“그 때는 수업시간에 통일, 민족, 민주적인 이야기를 하면 학생이 집에서 부모님에게 얘기하고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들이 고발해 선생들이 남산 중앙정보부나 서빙고 방청대의 지하감방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도 아이들에게 통일해야 한다고 교육하다가 지

금으로 치면 기무사인 방청대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색안경을 낀 군인이 교장실에 앉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좁은 서빙고 지하감방에서 3일간 엄청나게 맞으며 ‘왜 통일을 해야 한다고 했나’, ‘누구에게 지령을 받은 것인가’ 등을 조사 받은 후 밖에 나가면 이 사실을 일체 발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후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수차례 징계와 해직, 복직을 거듭합니다. 그러다보니 동료교사들보다 연금이 적습니다(웃음)”.

‘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 이어’

이런 가운데 1990년 초에 사회민주화운동과 연계돼 ‘교육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즈음 서울 법대에 들어간 제자 하나가 윤한택 선생을 찾아왔다. 제자는 “교육민주화운동이 일어났으니 선생님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며 활동가들과 연결을 해줬다. 비밀스럽게 활동을 하던 이들은 1990년 후반에 전교조의 전신인 교사협의회를 발족했고 윤한택 선생은 지역 교사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이후 1998년 전교조가 창립되는데 윤 선생은 전교조 창립멤버로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한다.

“전교조 창립식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양대로, 연대로, 건국대로 최루탄 맞아가며 투쟁을 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전교조 창립 이전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해 지금도 전국 어디를 가나 전교조의 나이트 회원들은 모두 저를 알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창립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가 보기에 교육개혁은 아직 멀기만 하다. 때문에 그는 퇴직을 했지만 지금도 미래를 위해 교육이 바로 서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교조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입시에만 매몰된 성적 지상주의 교육이 문제시 됐으나 지금은 오히려 특목고 등 학교도 서열화 됐고 더욱 치열한 입시위주의 교육, 신자유주의에 의한 이명박의 교육정책 등 교육 현실은 더욱 참담합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지역교육과 공부방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윤한택 선생은 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하는 교육문화운동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마련한 공간이 바로 교육문화공간 ‘향’이다. 향은 ①인간 품

위의 향기로움 ②올바른 방향, 지향의 목적의식성 ③우리가 잇기 쉬운 고향, 전통, 문화 등 우리 그리움의 근본 ④소리, 음향 등 우리의 소리가 메아리쳐 나간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벌써 출범한 지 5년이 넘었다.

“퇴직 후 현직 선생과 학생, 학부모, 예비교사(사범대생), 퇴직한 선생 등 교육 주체들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어보자고 해 이 공간을 꾸리게 됐습니다. 이곳은 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하는 교육문화운동을 목표로 삼고 역사의식이 없는 사회는 올바른 사회가 아니라 교육사를 가지며 운동의 미래를 찾아가자 합니다.”

‘향’에서는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학교를 방문해 향나무를 심고 비석을 세워주며 통일교육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하고 있다. 또 통일교육 등으로 기소 중인 교사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개혁투쟁 사회운동으로 발전돼야’

그러나 그의 활동은 교육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처음엔 ‘교장왕국’인 학교교육을 바꿔야 한다며 교육의 부패 문제를 해결을 위해 투쟁을 했지만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그는 “교육개혁투쟁이 민중들과 함께하는 사회운동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느꼈다고 한다.

“지금도 교사들 중에서 교육문제만 관심을 갖고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육도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변화가 없이는 교육도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학교 내에서 아무리 싸워도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부패정권이 계속되고 억압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민족과 국가에 정치적인 자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사들도 민족 문제, 민족자주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외세가 우리를 지배해 썩어빠진 정권이 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역사적 요구에 맞는 외세와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등 자주권 운동을 해야 합니다.”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그는 전교조 활동 당시에도 사회단체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가졌고 1999년 가을, 퇴직을 하고 바로 2000년 10월 실천연대 창립에 주력, 현재 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경기북부 진보연대 대표, 무건리 훈련장확장저지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대, 중앙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어 중고교 교사들도 나서야 한다는 것이 윤한탁 선생의 생각이다. 또한 6월 13일은 미선이와 효순이의 기일인데 이를 계기로 촛불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잘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으로 전교조와 중고교 교사들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달 중순 중으로 경기도 선생의 교육선언도 할 예정으로 전교조선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은 시대, 사회적, 역사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일제시대 항일운동의 중심에 교사들이 서는 역할을 했듯이 현재도 그런 자세로 나서 민족과 통일문제에 관련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6월 13일에도 미선이와 효순이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역 사회단체들과 함께 주민들에게 알리고 촛불집회와 연계해 대중운동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

‘조직의 투쟁성과에 희비 교차’

이런 그는 투쟁을 제대로 해냈을 때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다고 말한다.

“일꾼들이 단합을 해서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면 힘이나고 마음속 열렬한 마음으로 기쁩니다. 투쟁을 제대로 해냈을 때 미래를 볼 수 있어 행복한데 이는 운동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 아닐까요? 공자 역시 지식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좋아하는 것이 낫고 좋아하는 것 보다는 즐거워하는 것이 낫다고 논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운동은 이해만 가지고서는 안 되고 좋아해서만도 안 됩니다. 지식인들의 변절도 많지 않습니까? 투쟁은 늘 즐거워야하며 즐거워야 목숨도 바쳐가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이 시대 어려운 현실에 투쟁가로서 역할을 해낼 수 없으니 낙관적으로 활동을 하라고 활동가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윤한탁 선생은 반면에 조직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할 때 가장 힘들다고 밝혔다.

“숫자가 적은 조직이라도 동지애를 갖고 탄압 속에서도 즐거워해야 하는데 활동가들이 머뭇거리고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탄압이 심해지고 자금이 부족하거나 역량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조직이 할 일을 해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주저할 때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대중을 이끌기보다 어떻게 함께할까를 고민해야’

윤한탁 선생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500만이 넘는 조문행렬 등 대중들이 눈물과 분노를 표현한 것에 대한 의미를 사회 운동진영이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뒤에야 서민적이고 순박했던 모습이 재조명 되면서 대중을 위한 대통령이었던 것을 대중들이 이제야 알게 된 것이며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적이고 악랄하며 사기성 넘치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보이고 있어 반이명박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는 반드시 민중들의 뜻을 살려 승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활동가들이 운동진영의 투쟁활동 생활에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민중의 힘을 다시 인식하고 대중을 이끌어 하기보다 대중들의 정치적 의식을 어떻게 이어갈까를 깊이 생각하고 대중들과 정서를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동진영은 그저 단순히 조직끼리 연대를 통해 사회 대중들과 소통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테두리에 갇혀 관념적 이론으로서 우리끼리만의 연대를 할 뿐 아니라 대중들의 생활과 정서 속에 들어가 함께 해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방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들과 함께 어려움을 느끼고 걱정을 하지 않으면 공감을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 몸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항’과 교육문화운동에 중심을 두고 통일운동과 사회진보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윤한탁 선생은 “몸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법원, 삼성재벌과 공범입니다!

김성환 | 회원, 삼성일반노조위원장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2000년 6월 29일 법학교수들이 검찰에 고발한 불법채산증여관련에 버렌드재판에서 이견희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삼성족벌의 불법세습경영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었다. 단, 삼성SDS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 제3자배정 방식으로 이

재용 등 자식에게 최대지분을 싼값에 증여한 것은 유죄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그러나 신주배정 방식의 외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 모두 이재용에게 부와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한 그룹 차원의 조직적 범죄행위임에도 유죄가 아니라는 대법판결에 반발하며 법학교수 등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 '삼성재벌의 돈과 힘 앞에 법은 종이호랑이'라며 비판하고 삼성재벌의 3대에 걸친 불법적인 세습경영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면서, 03년 울산 삼성SDI 노사협의회 선거 시 회사개입에 대한 노동자 분신기도 관련재판, 04년 삼성재벌의 휴대폰 불법복제 노동자위촉추적사건관련 검찰수사, 05년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인 나의 명예훼손관련 구속재판, 07년 12월 태안 기름유출사건관련 재판과 김용철변호사의 양심선언과 삼성특검과 재판 그리고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진실규명사건, 08년 삼성전자 1차 하청회사인 동우화인캡 비정규직노조건설 탄압 및 해고와 구속사건, 08년 10월 울산 삼성SDI노동자들의 민주노총 급속노조 울산지부가입 사건과 08년 11월 삼성중공업



▲근로복지공단앞 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촉구 농성장에서

노동자협의회 위원장선거 시 회사개입에 의한 부정선거 진실규명을 위한 후보자 음독자살시도관련 재판과 08년 12월 싸움이 끝났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울산 삼성SDI 사내기업노동자들에 대한 실험구형 등등 삼성재벌과 관련된 사건은 미궁 아니면 피해노동자들이 가

해자로 뒤바뀌어 처벌을 받는 이 사회가 말 그대로 삼성족벌에 장악되어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김용철변호사의 양심선언 중에 삼성재벌은 수조, 수십조 원의 비자금을 불법으로 조성하여 온갖 불법비리를 자행하고 무노조경영이라는 불법적인 노동자탄압을 자행한 범죄단체이고 자신도 범죄행위를 실행한 하수인으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했음에도 이런 범죄단체의 피수인 이견희와 이학수 김인주 등 공범과 뇌물을 받아먹고 범죄를 은폐시킨 고위 관검사 등은 처벌은커녕 전 검찰총장 임채진의 예에서 보듯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이 사회는 아무리 자본이 주인인 사회라 하더라도 검찰과 재판부 스스로 기본적인 법질서마저 깨면서까지 이견희를 지키고자하는 저들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삼성재벌은 삼성중공업을 앞세워 석방된 지 1년도 안돼 나를 08년5월 태안기름유출사건에 분노와 좌절로 자결하신 세분의 태안주민들의 추모제가 집시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삼고,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부정선거 관련 후보자 음독자살시도 관련하여 고소를 하였고, 08년 삼성SDI는 사내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지투쟁 관련 또한 08년 10월 구조조정에 반발하

는 삼성SDI MD사업부 노동자들의 금속노조 울산지부 조합원가입과 관련한 글을 문제삼아, 울산삼성SDI에서 급성골수성 백혈병관련 제보를 공개했다해서, 삼성전자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관련하여 블러그기사 인터뷰내용을 문제삼아 고소를 하여 나를 이중 삼중으로 엮어놓고 속된 말로 털어서 먼지 나올 때까지 고소에 고소를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SDI본사, 삼성중공업, 울산삼성SDI공장장 등에 의해 고소를 당한 상태로 계속적인 경찰과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드는 생각은 경찰과 검찰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음뿐더러 이번에도 저들의 놀음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팔자임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삼성제벌이 고소한 사건 중에는 태안기름유출사건과 삼성반도체백혈병 등 사건처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회사개입 부정선거관련 음독자살시도와 삼성SDI노동자 금속노조 울산지부 가입사건 등은 일단 삼성제벌의 의도대로 정리된 사건이지만 노사불신과 갈등의 골을 더욱 깊어지게 한 사건이다

국민과 노동자의 입장에서 삼성제벌과 관련된 사건은 뭐 하나라도 속 시원하게 진실이 규명된 것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용철변호사의 양심선언으로 삼성제벌 이견회는 회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지만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사회정의 실현해야 하는 사법부는 되려 삼성제벌에게 법적인 면죄부를 주어 삼성제벌의 하수인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분신기도 사건도 그렇고 핸드폰 위치추적사건도 태안기름유출사건도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업재해 불승인 등 일련의 삼성제벌의 마수가 속속들이 미친 사건에서 보듯이 삼성제벌 문제에 관한한 그 판단에 있어서 가장 엄중해야 할 대법원마저 현실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은 모조리 외면하고 은폐한 가운데 아전인수격으로 내린 판결에 대해 이해 당사자만이 아니라 국민들은 삼성제벌의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과 세습경영을 위한 불법중여와 뇌물수수 그리고 무노조 경영을 위한 폭력적인 노동자탄압 등의 범법행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삼성 이씨 일가의 불법적인 제벌세습경영에 대해 합법화라는 시혜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논란의 종지부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벌 곧 자본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과 갈등 나아가서는 적대감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나는 05년 2월 22일에 법정 구속되어 34개월 동안의 감옥살이에서 07년 12월31일에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자마자 삼성제벌이 자행한 태안기름 유출 사건, 김용철변호사가 증언한 온갖 불법비리와 삼성계열사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서 삼성노동자들의 조직건설에 관여하며 연이은 삼성제벌의 나에 대한 이중삼중의 고소로 또 한 차례의 구속이 예상됨에도 선택의 여지없이 무모하다 할 정도로 부도덕하고 기만적인 삼성제벌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삼성제벌은 본질적으로 악랄한 자본가이고 대다수의 노동자가 생산의 주체가 되는 이 사회는 그래도 정의가 밥 먹여준다는 인간 보편적 삶의 가치를 굳게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인간다운 보편적인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이기에 삼성제벌이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어 고소하여 인신구속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과분하게도 국제앰네스티에서 국제양심수로 선정하였고,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는 '2007년 전태일 노동자상'을 감옥에 있는 나에게 수상하여 내가 신념을 지켜 나가는데 힘을 실어주었다, 그리고 핸드폰 위치추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이견회에 게 무혐의를 주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005년 삼성SDI에게 '가장 탐욕스런 기업상인 '빅브라더상'을 수상하며 삼성제벌의 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초일류 기업 인간중심의 도덕 경영을 앞세운 삼성의 부도덕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삼성의 계열사인 기흥, 온양삼성반도체공장에서 현재 22명의 노동자들이 백혈병이 발병으로 11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했다는 구체적인 사실 - 한 라인에서 시수, 부사수로 일 하던 스무한 살과 서른한 살 젊은 여성노동자 두 명이 연이어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에서 작업현장에서 발암물질이 확인되었음 - 에도 삼성제벌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질병이라면서도 처음부터 백혈병 발병 은폐를 위해 돈으로 유족을 회유, 기만하였다. 이런 사실은 산업안전공단에서의 역학조사 결과 백혈병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인 안 되고 업무상연관이 적어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백혈병 산재 불승인 판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갓 30대에 남편을 또 다른 사람은 아내를 또 스무한

살의 딸을 백혈병으로 앓긴 유족들과 지금 백혈병 치료 중인 스무세살 서른아홉살의 여성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백혈병이 직업병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오히려 삼성반도체현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싸워 백혈병이 직업병임을 밝혀 사망하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유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악랄하고 초일류 악덕기업 대제벌 삼성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삼성제벌의 무노조경영의 본질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조직건설을 짓밟고 노동착취를 통해 오로지 삼성족벌 이씨 일가를 위해 극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족벌세습경영에 노동자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모르겠는가,

무노조 경영은 노동자들을 납치, 감금하고 해고하고 구속시키고 핸드폰을 불법 복제하여 죽은 사람의 명의로 위치추적을 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폭력적인 노동자탄압을 통해 유지되는 범죄행위를 누가 모르는가,

2003년 6월 삼성SDI노동자 4명이 노사협의회 선거에 개입한 회사의 처사에 분노하여 승용차 두 대에 휘발유를 부어 신고 회사 관리동 본관으로 차를 몰아가 삼성제벌의 무노조 경영의 실체를 폭로 규탄하고 알리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방화범이 되어 실형을 살고 나왔지만 정작에 이들이 왜 죽음을 각오하고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진실은 규명되지 못한 채 회사의 선거개입 사실은 은폐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징계해고가 되고 삼성에 의해 범죄자의 누명을 쓰게 된 삼성 SDI해고자 임경완씨는 3도 화상을 입은 몸으로 힘든 삶속에서도 진실규명을 위한 결의를 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위원 장선거에서의 회사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 역시 후보자의 음독자살 시도를 하며 진실규명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언론통제와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징계로 제압하였지만 그렇다고 삼성제벌의 노동자협의회 선거개입 부정선거 사실 자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처럼 기만적 판결로 면죄부를 받았다해도 삼성제벌이 자행한 온갖 불법비리와 범죄적인 노동자탄압에 대한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분노에 찬 싸움은 현재 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른바 이 사회의 일부 지도층, 주류라고 하는 자들의 위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사 그리고 일부 명망있는 학자와 교수, 고위행정관료 및 판검사나리들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모리배들과 역대 대통령과 후보자 그들 역시 삼성제벌의 온갖 비리에 연루된 공동정범이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의 투표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삼성제벌의 돈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조차 백프로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삼성제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더 이상 삼성제벌의 본질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삼성족벌 이씨 일가는 ‘이 사회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진보적 발전을 가로막는 악의 축으로서 타도의 대상’이라는 사실과 천박한 자본주의의 친위대 역할에 앞장 선 경. 검찰, 법관, 정치권, 행정관료 등 그 누구도 결코 삼성제벌 몸통 이견회를 단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데서 대제벌 삼성과 맞서 싸워 나가는데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보라! 삼성제벌이 온갖 비리와 노동착취를 통해 조성된 천문학적인 비자금인 더러운 돈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는 자들이 어찌 그 숙주인 삼성족벌 이견회를 처벌할 수 있겠는가…….



산행광고

6.15 한마음 통일산악회 7월 산행

- 장 소 : 우이령 고개걷기
- 일 시 : 2009년 7월 12일 (일) 오전 9시
- 모이는 곳 : 우이동 그린파크 앞
- 준 비 물 : 점심 도시락, 회비 3000원 (도시락 준비 안되면 5000원)

역량에 대하여 I

1 序

태평양 적도의 작열하는 태양은
4.5월과 6월을 지나
7월 혹은 8월이 되면
지구의 표면에 가까이 다가와
바다의 가장 깊고 장대한 기운을 만나
서로 끌어안고 하나가 되어
묵직하고 단단한 태풍의 눈을 준비한다.
동북아 한반도 인근 바다의
작은 물결, 어찌면
둥근 지구의 표면을 따라 잇닿은
세상 모든 바다의 잔물결,
물결들이 서로 만나 수상하게 물결치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율동을 맞추어
하나의 거대한 파도를 준비한다.
바람보다 먼저 쓰러지고 울었다던
하나의 작은 풀잎,
지난 한 세기를 그렇게 쓰러져
해 저문 고요한 강물따라
어두운 山 그림자로 나지막히 엎드려
소리없이 숨죽여 홀썉이던
이 땅의 작은 풀잎
풀잎들이 불현듯 눈물을 흠치며
일어선다. 동이 트기도 전에
엎드린 제 그림자 일으켜 세우며
허리를 펴고
고개를 불쑥 쳐들며
스스로 산이 되어 일떠선다.
굽이치는 백두대간의 푸른 능선 따라
흐르는 강물 따라 뒤엎힌 뿌리들
풀잎의 뿌리들은 이미 오래 준비된
거대한 역량의 뿌리다.

2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떠서는
풀잎들의 이마에는 이미 오래전인

장민호(이른바 ‘일심회’ 사건 구속양심수)
7,8월의 작열하는 태양에 검붉게 그을린
불온한 머리띠, 불씨의 흔적이 선명하다.
불씨의 흔적을 이마에 두르고
산처럼 우뚝 선 하나의 풀잎은 이미
해 저문 들녘마저 환하게 뒤덮을
들불의 불씨요,
세계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상의 횡발이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인적 드문 광장의 어둠을 밝히기 시작하는
어는 한 촛불의
시작없는 시작이다.
젖은 수건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주고 받는 순간의 눈빛만으로
자신의 불온한 정체와 변혁의 의지를 밝히며
하나의 거대한 불빛을 결성하는
그 배후를 파악할 길 없는
불순한 배후의 후광이다.

3

이제 횡발처럼 불온한 이마를 쳐들고
바다를 향하여 나아간다.
바다에 닿기도 전에 이미
바다가 되고 물결이 되어 스스로 물결친다.
불온한 풀잎들은 동북아 한반도 인근 바다
어찌면 이 세상 모든 바다의 낮은 물결들을 만나,
서로 수상하게 물결치며
하나의 파도가 된다.
그것은 이미 거센 태풍을 동반한
하나의 거대한 파도,
묵직하고 단단한 태풍의 눈이
그 중심에서 힘차게 요동치며
또 하나의 거대한 파도를 향하여 전진하는
민중의 영원한 삶의 원리
오직 투쟁으로 쟁취하는 대동간결의
거대한 역량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서로 만나
하나의 역량을 이루며
하나된 조국강토, 민중이 주인되는
새로운 세상을 준비한다.

역량에 대하여 II

1

서로 태어나고 자란 곳 다르고
사상과 정견, 종교를 달리하는 우리들이
대동단결의 광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수많은 길들은
넘어서야 할 수 있는 차이와 난관들로 가득한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의 길,
오직 투쟁의 길목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우리들의 힘과 능력을 확인하여 가는
쉽없는 투쟁과 앞의 길들이다.
공장에서, 마을 어귀의 들판에서
학교나 집 그리고 거리의 도처에서 저들은
민중의 힘과 능력을 비하하고
그 권능을 자신들의 것으로 참주(僭主)하는
불순한 선전선동을 펼치며
우리들의 길목을 막아선다.

2

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들판의 어린 들소 한 마리를 게걸스레 먹어치우는
한 무리 사자들의 모습을 상영하며
폭압과 착취의 권능을 고무찬양하고 그것을
세상의 법이요 질서로 선전선동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바,
그 늙고 병든 사자들은 이미
격분한 소떼들에게 쫓겨 달아나 버렸으며
황폐한 초원의 어느 한 구석, 자연동물원에서
간신히 명줄만 잇고 있지 않은가? 쓸쓸히 최후를 기
다리며
저들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자본과 제국의 옛 패
권을 그리며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이 일터와 가족들을 잃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지구의 수많은 인민들보다
한 무리의 병든 사자들
한 줌도 안되는 자본가들의 배를 채우고
구제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저들은 여전히 그 늙은 사자의 낡은 필름을 돌려대
며
자신들의 무덤을 더욱 깊이 파고 있는 것이다.
저들은 또한 우리들에게
GPS와 초정밀유도미사일에 의해 무참히 살육당하
는 수많은 「부수적 피해자들」의 모습을 상영하며 저
들의 첨단과학과 민중학살의 권능을 과시한다. 우리
들은 묻는다. 너희들의 공무(公務)가 민중학살임은 잘
알려진 얘기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들의 도덕과 위신처럼
세계의 도처에서 추락하고 있는 첨단 헬기들,
이미 수만을 넘어선 제국주의 용병들의 시체들,
불구가 된 신체들은 모두 어디에 숨겨 놓았는가?

3

이제는 더 이상 비밀도 아닌
제국주의의 실추된 위신과 무능을 애써 감추며
저들은 새로운 매국노, 독재의 앞잡이들을 내세우고
법과 질서 그리고 국민여론을 들먹이며
우리들의 길목을 막아섰다.
우리들은 외친다. 바로 우리들이
입법의 주체요
질서의 창조자,
국민여론이란 바로 다름 아닌
우리들의 뜻과 의지,
자주의 가치를 지켜든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하고
그것은 조중동따위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대한 소식들의
유일무이한 원천이요,
스스로 알고 서로 알리며 이는 민중의 意中
우리들 마음의 中心이다.

4

저들은 비열하게 헐뜯는다. 우리들의 품모와 위신을

가소롭게 예의를 들먹이며,
우리들은 되묻는다.
앞에서는 중도中道와 실용, 화합을 떠벌리며
등 뒤에선 공안의 칼날을 갈고 있는 너희들의
위선과 기만으로 얼룩진 예의보다
우리들의 공공연한 적대와 분노가
더욱 참된 인간의 예의 아닌가?

5
이제 저들의 무례는 도도와 분수를 넘어
산화하신 님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길목마저 막아섰다.
우리들은 슬픔과 분노로 외친다.
고결한 사회정치적 생명의 피와 살점들을
우리들 산 자들에게 선뜻 떼어주고 가신
고난에 찬 역사의 선열들에 대한
우리들의 기억과 애도,
정성어린 제사와 결의에 찬 추모는
우리들 산자들의 세상은 물론이요
선열들이 머물 세상 저편마저
더 나은 곳으로 변혁시키며
기필코 오고야 말, 어찌면
이미 도래했을지도 모를 부활의 새 세상
대동단결의 광장에서 모두들 다시 만나,
세상에 비할 바 없이 커다란 하나의 역량,
새로운 혁명전통의 역량을 창조한다.

6
저들은 캐묻기 시작한다.
비겁하고 기늘게 뜬 눈으로,
이 모든 협박과 설교, 무례와 조롱들을 조롱하듯
결코 멈추지 않는 우리들의 전진과
의연히 성장하는 역량을 지켜보며
우리들의 사상이 불온하다고,
서로 만나는 이유가 수상하다고,
혹시 접선接線하는 것 아니냐고.
우리들은 대답한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불온하며
모든 만남은 수상하다고

변화의 시작인 아침을 알리며
태양은 매일 불온하게 떠올라
푸른 바다와 대지를 수상하게 접선하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변화를 추동한다.

7
이제 갈라진 목소리로 저들은 떠벌린다.
소위 중도中道와 화합에 대하여 등 뒤로는 물대포와
몽둥이 그리고
공안의 칼날을 번들거리며
우리들은 즉각 대답한다. 너희들의 중도란
오직 투쟁으로 성장하며 전진하는
우리들이 잠시 주춤거리며
중도中途에 멈추어 선
바로 그 길목의 이름,
우리들의 전진을 저지하며 도처에 세워놓은,
민중의 힘과 위신을 헐뜯고 그 권능을
자신들의 것으로 참주하고 고무찬양하는
불순한 선전선동의 간판들,
일렬로 늘어선 전투경찰버스, 진압용 방패들,
그리고 국가보안법, 그들 앞에 멈추어 선
우리 역량의 한계
저들과 우리 사이를 명암처럼 가로 지르는
선명한 경계의 끝말에 불과하며
우리들의 중도란 우리가 투쟁으로 일떠서며
나아가는 중, 길에서 서로 만나
하나의 단결된 역량으로 되여가는
어느 광장이나 들판
거리나 길목의 이름 혹은 교도소 접견실...,
대동단결의 광장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길들의
또 다른 별칭일 뿐이라고.

역량에 대하여 Ⅲ

1
이제 상황은 명백하고
우리들의 결단은 단호하다.
그것은 저들의 폭압과 협박에 굴종하고

불순한 선전선동의 은밀히 추동되는
 그 어떤 중도적 결탁이나 협잡도 단호히 거부하며
 오직 투쟁으로 단결의 대오를 늘리는 것.
 오직 단결된 역량으로 투쟁의 파고波高를 높이고
 우리들의 참된 중도中道를 따라
 민중의 의중으로 대오의 중심을 잡으며
 늘어선 전경버스, 방패들의 경계, 중도에 멈추어 선
 우리 변혁 역량의 한계,
 식민지 분단체제의 경계 너머로 6.15 10.4의 가치를
 높이 들고 모두 함께 돌진하는 것.

2
 바로 그 돌진의 순간,
 우리들이 목놓아 외치는
 단 한마디의 구호,
 그 어떤 외마디 절규도 이미
 하나의 사상,
 자주와 평등을 단언하는
 가장 불온한 사상의 선전선동이요
 조국과 민중에 대한 열렬한 고무찬양이다.
 공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동네 어귀의 들판이나 촛불광장에서
 우리들이 접선하며 주고 받는
 일별의 불온한 눈빛들, 굳게 잡은 손들과
 서로 뒤엎힌 어깨들은 이미
 민중의 최고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결성된
 거대한 뿌리의 이적단체이며
 건 당 30원 인상을 위한
 우리들의 목숨 건 투쟁은 이미
 민중의 생존과 존엄은 물론이요
 민족과 계급의 그 어떤 이익도 건결히 옹호하는
 이적행위,
 식민지 분단체제의 밑동을 내리치며
 세계를 변화시키는
 단결된 우리 변혁 역량의
 거대한 해방투쟁이다.

5
 수많은 차이들을 과감히 뛰어넘고
 슬한 난관의 길목들을 지나

대동단결의 광장에 모여든 우리들은 이미
 저들의 무능과 필멸성 그리고
 그것을 추동하는 힘의 원천이
 우리들 자신임을 투쟁으로 깨우친
 심오한 삶의 주인들이다.
 그 삶의 역능은 하나의 거대한 촛불처럼
 식민지 분단조국의 하늘을 뒤덮은
 어둠의 장막을 걷어 버리고
 저들의 죄상과 참 모습을 낱알이 밝히며
 최종심급의 역사적 재판을 주재한다.
 그리고 정의와 민중의 이름으로
 매국노, 매판자본가 독재의 무리들,
 너희들의 유죄를 엄숙히 선고한다.

4
 그러한 바, 피고인들, 피고의 하수인들은,
 지금 당장 중단하라!
 불법적 민중탄압, 공안탄압을
 법과 여론의 탈을 쓰고 참주하는
 천인공노할 사법살인, 정치살인들이며
 민중의 사회정치적 인격마저 짓밟고 말살하는
 그 모든 살인공모들,
 희생되고 산화하신 님들에 대한
 애도의 촛불마저 무참히 짓밟는
 천륜말살 행각들을.
 차라리 짓밟으라! 우리 모두를,
 전 국민을
 이 땅의 피어린 역사와
 전 민족을
 떠오르는 태양과 매일 아침 접선하는
 수상한 동해바다를, 차라리
 조국강토며 자연을 수배하고 체포하라!
 감히 그럴 수 있다면,
 과연 너희들에게 그럴 역량이 있다면
 그럴수록 너희들의 형량은 커져만 가고
 우리들의 역량은 백배百倍한다.
 오직 투쟁의 구호로 숨을 쉬고
 대동단결의 기운을 마시며 사는
 우리들의 변혁 역량은 날로

축적 장성 강화 발전한다.

※故 박종태 열사 노무현 전대통령 강희남선생님 그
리고 7주기를 맞은 미선.효순의 영전에 이 글을 바칩
니다.

- 2009.6.15 대전교소소에서



알립니다

7월 장기수선생님과 함께 하는 이북영화 상영회(131회)

■일 시: 2009년 7월 14일 (화) 늦은 6시

■장 소: 통일부 북한자료센터(광화문우체국 6층)

■작 품 명: 조선의 별 5, 6부(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82년 제작, 73, 70분 상영)

■줄 거리: 1920년대말부터 1930년대초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젊은날 김일성 주석의 항일혁명투쟁 모습을 그려낸 이북의 대
표적인 혁명영화.

*제5부 '눈보라'는 1931년 만주사변 후 급변한 정세에 대처하여 청년들이 무장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특히 김일성
주석은 '첫째도 둘째도 인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거기에서 항쟁 개시의 신호를 기다리시오.'라고 말씀하신다.

*제6부 '불타는 봄'은 1932년 봄 일제의 간도토벌 만행과 그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이야기한다. 또한 김일성 주석은 모친 강반석
을 생각하며 "모두들 어머니들을 생각해서라도 잘 싸워요. 세상어머니들이 자식들이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고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머니의 깊은 속을 모르고 하는 말이라오. 어머니들이 제일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
는 것은 자식들이 못난 짓하고 다닐 때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라오."라고 말씀하신다.

■문 의: 한찬욱 (016-235-5631)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좌광고

월례 회원 시사강좌 6월 강좌 알립니다.

이번달 월례강좌를 맡아주실 이덕일 교수는 대 학원에서 사회주의계 무장독립운동단체인 동북항일연군에 대한 연구 논문인 '동북항일연군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으로 사단법인 한가람문화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역사
소설가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이덕일 교수의 강좌에 회원들의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 바랍니다. 저서로는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 사회로 보는 조선역사, 사도세자의 고백, 조선 왕 독살사건, 여인열전, 누가 조선왕을 죽였는
가 등이 있습니다. 현재 한겨레신문 고정칼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 제: 미정 ■일 시: 2009년 6월 27일 (토) 오후 4시

■준 비 물: 양심수후원회 회원의 자금심과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과 나누고 싶은 어떤 이야기 술 안주거리
찬거리 남는 돈 등등

5.18 기행은 나에게 그렇게 다가왔다

이용준 | 회원

5.18!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98년인 것 같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한 98년 즉 국민의 정부 첫해의 5.18 관련 행사였다. 광주에서 공식적인 마지막 일정 중에 광주역에서 마무리 집회 중 갈무리 즈음의 마지막 연설자 중 부산



의 배다지 선생이었다. 그때 연설의 요지는 “지금까지 우리는 정권을 너무 비판만 하고 투쟁만 해왔다. 이제는 가만히 지켜보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그 당시만 해도 어이가 없었지만 우리는 가끔씩 그런 착각을 한다. 98년 광주 5.18을 바라보면서 민예총에서 심지어 ‘아듀 5.18’이라는 표현까지도 썼다.

그리고 강산이 변한 10년여다 또 1년이 지났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합쳐 10년을 보냈고, 지금 이명박정권에서 맞이한 5.18을 좀 씩씩하다. 5.18은 지금까지 성역과 같았다. 그 누구도 5.18을 가지고 문제삼거나 판지결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해방구였던 것이다. 그런 성역이 그런 해방구가 이제는 좀 시들시들해지고 있다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이명박 장로의 충실한 부하는 5.18의 흔적을 지우기 위하여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열심히 불도저로 5.18 최후의 격전지를 허물기 위하여 3분대기 하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5.18 단체 중 일부가 완장을 차고 유인촌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는 지금 5.18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 양심 후원회의 2009 5.18 기행은 나에게 그렇게 다가왔다. 축제의 분위기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용산참사와 태백운임 30원 인상을 위하여 노동자가 목숨을 끊어도 살벌한 투쟁의 분위기도 아니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내 마음의 문제라고 애써 위로해 본다.

광주의 도심은 아시

아문화중심도시 건립으로 도청은 떠났고 광주시 당국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로 정신이 없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도 광주의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도 광주의 5.18을 참 더럽게도 팔아 먹는다. 스포츠 행사 유치도 문화시설 건립의 당위성도 29년 전 전두환 일당의 학살의 참극을 문화와 체육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참극을 문화로 승화시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역사로 만들어 가는 여정 역시 중요하지만 29년 전 참극의 본질을 우리 후손들에게 학습시키고 더는 불운한 역사를 만들어 내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핵심이다. 아직까지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분단국가인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저물어 가는 초여름 날. 국가안보와 향토방위를 위하여 예비군훈련을 받고 와서 자랑스러운 향토예비군으로서 이글을 쓴다. 5.18의 역사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도청 별관을 허물 생각 말아라. 이 땅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로서 유인촌 장관에게 담담히 조언한다. 시간이 더 걸려도 즉시 설계변경하라. 그리고 도청 별관

철거를 찬성하는 5.18 관련단체에도 준엄히 요구한다. 그 어떠한 명분과 논리로도 도청별관 철거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그저 권력에 넘어가 구차한 입신양명을 꿈꾸는 허무한 집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5.18 한참 후에 태어난 세대이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양심수로서 옥살이를 경험하였고, 연례적이긴 하지만 광주에서 투쟁하며 청춘을 보냈기에 그러하다. 이명박 장로가 우리에게 더 이상 보여줄 희망도 미련도 없다는 것이 이미 결론 난 마당에 5.18의 이름으로 도청별관을 철거한다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의 논리와 재선을 바라보며, 스포츠 행사유치에만 들뜬 광주광역시 박광태와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인가.

너무 경직된 이야기만 하여 회원독자들에게 무척 송구스럽다. 이번 광주기행 중 광주가 오리탕이 유명하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정말 맛있어서 소주도 많이 마셨다. 로스구이도 맛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입맛이 돌고 갈수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달려가고 싶다. 내년 꼭 다시 가야겠다. 입맛에 취해 실없이 값을 내가 모두 치렀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권오현 선생님과 형님, 누님들을 위하여 오리탕 한턱 쓴 게 전혀 아깝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용산역으로 향했다. 이번 5.18이 좀 씁쓸한 여행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내년을 기약하며 살아가는 수 밖에. 투쟁하면서... 아무튼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참 부끄럽다.



한백렬 선생님을 떠나보내며...



지난 2000년 9월 2일 비전향장기수 63명과 함께 북녘고향으로 송환되셨던 한백렬 선생님께서 평생염원이신 통일된 조국을 보시지 못한 채 2009년 5월 12일 89세를 일기

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1920년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에서 태어나시어 1940년 중앙고보를 졸업하신 뒤 고아 등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동일학원을 세워 육영사업을 하였고 1945년 조국해방 뒤 고려대학에 입학 수학하셨으며 전쟁시기에는 형님을 만나기 위해 평양에 가시어 출판물관리 사업을 하셨습니다. 1954년 통일사업을 위해 남쪽에 오셨다가 체포되어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고문후유증으로 왼쪽다리를 절단. 1960년 형집행정지로 잠시 출소했었으나 1961년 다시 수감 옥고를 치르다가 1968년에 만기출소하셨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유신독재시대 사회안전법이 제정되면서 비전향 이유로 1977년 재수감, 청주보안감호소에 갇혀있다가 이 악법이 폐기되면서 1987.7.15에 모두 23년 옥고를 치루고 출감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모진 고문으로 왼쪽다리를 잃어 목발에 의지해서만 외출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랜 옥고에서도 자주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양심을 지켜오셨기에 2000년 6.15공동선언에 따라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높은 지성과 누구보다도 겸손하시고 인자하셨던 선생님 모습을 더는 보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통일된 세상을 보시지 못했지만 평생염원했던 또 다른 조국을 찾으신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한백렬 선생님 약력

1920년 2월16일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 율리 한순희님의 셋째아들로 출생

1929년 4년제 판교보통학교 입학 후 서울로 전학하여 2년 수료 후 졸업

1940년 중앙고보 졸업 후 동일학원을 세워 고아사업(남의집살이를 하고 있는 처녀들을 위한) 시작
해방 후 고려대학교에 서론을 넘어 입학

1950년 10월 전쟁시기 형을 만나러 평양으로 감. 평양에서 출판물 관리사업

1953년 2월 내각 간부학교 입학

1954년 8월 26일 통일사업으로 내려오심

1956년 10월 22일 체포

1960년 2월 고문후유증으로 왼쪽 다리 절단으로 형집행 정지

1961년 7월 5일 재수감

1968년 대전에서 만기출소

1977년 4월 18일 사회안전법으로 재수감

1989년 7월 25일 청주보안감호소에서 출소

김종학 선생님을 떠나보내며...



비전향장기수 2차
송환희망자이었던 인
민군 전쟁포로 출신
김종학 선생님께서
대구 요양시설에서
오랜 옥로의 후유증
을 앓아 오시다 끝내
통일 세상을 보시지
못한 채 6월 4일 세상
을 떠나셨습니다.

김종학 선생님은 전
쟁포로에 대한 국제법상 권리로 1954년 정전협정과
함께 포로교환에 따라 원적지로 송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도 분명치 않은 국방경비법등으로
부당하게 구속·기소되어 29년의 옥고를 치러야 했습
니다. 또한 1차 송환 때 당연히 우선 송환대상이었지
만 기회를 놓쳤다가 2001년 2월 2차송환을 신청하시
며 신념의 고향을 찾고 그리운 가족을 만나는 날만을
기다리고 계셨지만 안타깝게도 평생의 염원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1929년 12월 13일 평안북도 영변에
서 태어나시어 1945년 조국해방이후 민주청년동맹에
가입하셨고 자위대 활동을 하셨습니다. 1950년 전쟁
시기에 보위정 소속 기계화 부대인 603부대에 배치.

전쟁에 참여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전선이
동에 따라 움직이며 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950
년 말 경남 사천에서 미군폭격으로 발목부상을

당해 야전병원과 남원병원 등으로 옮기며 치료를 받
아오시다가 9월 후퇴를 하게 되어 전라북도 내륙으로
이동했으나 퇴로가 막히어 덕유산, 운장산 등에서 유
격활동을 하셨고 충남 뺑치산의 근거지인 대둔산으로
이동 도당 호위부대를 맡아 활동하셨습니다. 1955년
1월 2일 4년여의 유격활동 끝에 경찰에 체포되어 모
친 고문을 당하고 대구법원에서 사형구형, 무기선고
를 받으시고 복역 중 1960년 4.19혁명이후 20년으로
감형되었으나 1974년 전향거부등 다른 이유로, 다시
7년 추가 형을 선고받고 1983년 6월 2일 29년의 옥고
를 마치고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셨습니다.

출소 후엔 공사장 등에서 막일을 하시며 생계를 이
어오다 현장에서 소중한 인연을 맺어 가정을 꾸리셨
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을 잊지 못하시고 그리워 하셨습니다. 모친 홍인표님
과 형제자매로 중호, 영식, 현숙 등이 있어 2차 송환을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선생님 장례는 가족장으로 하여 6일 대구 명복공원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여 고향땅에서 가까운 속초 땅
에 유골을 뿌리셨습니다. 삼가명복을 빕니다.

故 김종학선생님 약력

1929년 9월생, 평안북도 영변에서 태어남

1945년 이후(해방 이후) 민주청년동맹(민청) 활동과 자위대(마을 자체로 조직된 보위대) 활동

1950년 보위성 소속 기계화 부대인 603부대의 일원으로 전쟁 참여

1950년 말 사천에서 미군 폭격으로 인한 발목 부상으로 야전병원 후송 후 남원으로 이송, 이후 충남뺑치산
근거지인 대둔산에서 도당 호위부대원으로 활동

1955년 1월, 체포, 사형구형 후 무기형을 선고

1960년 4.19 당시 20년형으로 감형, 출소할 때 쯤 전담반이 생기면서 7년형을 추가로 받음

1983년 6월 3일 만기 출소 함 (29년간 옥살이)

1984년 12월 소중한 인연을 만나 가정을 꾸림

2001년 2월 6일, '장기수 2차 송환 촉구 기자회견'에서 복송 의지를 밝힘

2009년 6월 4일 11시 52분경, 작고

이종우 님의 편지

2009년 5월 1일 노동절 밤 10시

명동 밀리오레 옆 인도에는 약 300명의 시민들과 일개중대 약 100명 이상이 서로 눈치보며 혼란스러웠는데 갑자기 전의경으로 보이는 한 무리가 뒷길로 들어와서 시민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 그들을 에워싸고 무언의 긴장감이 흐르자, 한 무리의 인식표나 견장, 소속표도 붙이지 않은 무리가 찾길 쪽으로 다시 퇴각하였습니다.

이때 몇명의 남자들이 그 전경들과 시비가 붙었고 결국 그들은 집회시위도 하지않은 시민들에게 방충으로 다수의 무력으로 협박하다가 시민들이 항의하며 돌 등을 던지자 무작정 달려와 시민을 잡아가려 했습니다. 저는 건물 계단에 서있다가 한사람이 쫓겨오다 넘어져 잡히고 구타당하자 나도모르게 전경 7~8명과 싸우다 힘에 밀려 죽도록 두들겨 맞고 잡혀와 서울 구치소에서 한달 째 재판받고 있습니다. 제 손에 스프레이 파스와, 호신봉이 들려있어서 집시법과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으로 기소했던군요. 최고 8년 반을 복역할 수도 있는 죄명입니다. 알지도 못했던 후원단체가 제게 소식지도 보내주시고 돈도 주셔서 어찌 감사해야할지 몰라서 무작정 두서없는 감사의 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나가면 반드시 저도 한 몫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이곳에서는 정말 큰 위안이 되는군요.

아울러 면회조차 올 사람 별로 없는 양심수를 몇 명 아는데 가능하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꼭 갚겠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으나 현재는 너무 어렵네요. 수감자끼리 도울 수도 없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염치없지만 부탁드리며 또 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7 윤형남 4상 5방 조계사 테러 피해자 (친구야놀자)

2132 형유서 16상 9 대만국적 한국인 서울에 연고없음. 양심수.

186 전도한 16중 11 5월 1일 명동

71 하건호 14하 9 5월 1일 명동

199 성현호 13하 8 민주운동가

155 박철순 10상 7 5월 1일 명동

- 이종우 올림

박경식 님의 편지

잠에서 벌떡 깨니꿈에 개성엘 갔다. 김참사와 봉동관에서 점심을 먹는데, 연거푸 따르면서 뭘따냐고 묻는다. 토끼따라 했더니 주름진 얼굴을 들이밀며 소따라고 자기가 형이란다. 형, 동생 기념으로 시계를 바꿔줬다. 내 시계는 C.K 그의 시계는 D.PR.K다.

한참 이야기하는데 뭘가 이상하다. 알고보니 걸 늙어 보였을뿐 73년 소따다. 안방 이점은 기본이 아니냐며 너스레를 떤다. 한참 동생뻘에게 형이라고 속은 게 분통이 터져 언제 남측에 오면 멋지게 한방 먹여주리라 속좁은 다짐을 했다. 녀석 좋은 동생은 남북회담을 하러 남측을 방문한 적이 있단다. 커다란 냉면집에서 동석(同席)을 가졌는데 여성봉사원들이 너도나도 집게와 가위를 들고다녀 밥먹는 내내 바지앞춤을 부여잡고 있었다고 했다. 언젠가 남측에서 본 "3cm 싹둑"에 겁이나서 궁리를 했다 한다. 안해가 출장갈 때는 불알을 떼어놓고 가라해서 떼고왔으니 일없이요를 되뇌었다나. 그러고보니 남측에는 공연하게 바지앞춤 부여잡는 사람이 천지다. 수십년을 한결같이 "...정부를 참칭하고...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를 주문처럼 외위대는데 정말 무섭기는 했을까. 그래도 봉동관은 고기를 먹어도 봉사원들이 가위는 커녕 집게조차 들고다니지 않는다. 다행이다 생각하다 잠에서 깨니 달을 보고 짖어대는 두목개, 줄개개들 울음소리가 천

지에 그득했다.

화장실에서
그래
네놈이었더니.
신새벽
몸을 시달리게 한 것이

기생(寄生)이 본성인 미균(米菌)과 홀레불어
든든한 팔과 다리 놓아두고
여리디 여린
창자만을 골라서
무던히도 괴롭혔지.

마참내
식은 땀 흘려가며
끼끄 힘줬더니
몸밖으로 ◎겨나온
지독하게 더러운 놈.

냄새나고 속시커먼 것조차 닮은
에라이, 명바기같은놈아!

반동(反動)을 개혁으로, 매국을 애국으로 기망하는 지배계급이 판치는 시기에는 자고 먹고 싸는 일도 부자
연스러워지나 봅니다. 냉소가 아닌 입꼬리 올라가는 생활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기를.

- 2009.4 박경식 올림

최용근 님의 편지

망국의 법 국가보안법

민족의 동질성과 남북의 이념이 화합을 근본적이지요 정면으로 부정하는 법,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통치이념이자 망국의 법이 세계의 개방과 개혁 그리고 화합의 시대를 살고 있는 아직도 자신의 부끄러움도
모른 민족의 정기를 짓밟고 이산의 거래 그 한뼘한뼘 심장에 암적이고 독버섯처럼 살아서 비수를 쫓고 있다.
출처도 모호하며 개념조차도 없는 법 그 망국의 법이 아직도 무고한 시민을 투옥시키며 그 위용을 전 세계
만방에 떨치면서 자랑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긴지도 모르는 법 도무지 존재 이유를 모르는 법 그
희한하고 우스운 못된 법이 지금도 시퍼렇게 날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호령하고 있다. 자기동족을 적으로
간주하고 모든 소통과 교류를 끊는 그 무식하고 살벌한 미친 법이 아직도 살아서 펄펄 날뛰고 있다. 지나온
반세기 암울했던 비극의 역사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정적과 무고한 수많은 동포를 학살시키고 투옥시켰던
그 악명 높고 잔인한 망국의 법이 그 자신이 해악과 죄상도 모른 채 지금도 굳건하게 살아서 민족을 파멸시
키고 있다 21세기 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한반도에 휴전선 철조망민크이나 부끄러
운 모습으로 망국의 법이 가로막혀 있다. 사상과 이념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민족공동체를 허용하지
않는 법 그 몰상식하고 세상에서 가장 창피스러운 망국의 법이 온 세상 모든 이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는 줄

도 모르고 그 뻔뻔스러움이 극치를 보여주며 무고한 시민들을 색출하여 처단하려고만 한다.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법 자신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도 모르는 법 자신의 죄상을 모르는 파렴치한 법이 한반도를 슬프게 하고 있다. 이 땅을 울게 하고 있다. 지금이 어느 때가 우주를 정복하고 최첨단 문명세계를 살고 있는 현시대에 모든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지구 공동체를 살아가는 요즈음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에나 있을 법한 미개한 법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대학들은 다 무엇을 가르치며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도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초등학교의 알고 아니 삼척동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망국의 법을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회지도층인사들이 그 해악과 죄상 그리고 민족을 파멸시키고 있음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동족을 갈라놓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피로 물들이는 이 말도 안되는 악법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지난날의 민족의 상처와 이 더럽고 짜증나는 망국의 법에 의해 처벌을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를 빌며 상처를 치유해줘야 하고 보상을 하고 명예를 회복시켜드려야 한다.

바로 이것이 민족화합과 통일의 문을 여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전 세계 만방에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고 민족의 권위를 지키게 첫 단추가 될 것이다.

- 2009년 4월 21일 최 용근 올림

이경원 님의 편지

안녕하십니까?

임미영 국장님께서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잡혀오기 전에 권오현 선생님께서 가슴이 계속 아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차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셔야 투쟁의 현장마다 선생님의 힘찬 연설이 울려 퍼지고 후배들에게도 힘이 되고 든든할 텐데 걱정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처음 읽은 책이 권선생님 호희 기념 글모음집입니다. 예전부터 읽어봐야지 하다가 미뤄 놓았는데 이제야 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조국통일에 대한 신념과 열정,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장기수 선생님의 송환을 위해 분주하게 투쟁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권오현 명예회장을 뒤이어 회장의 중책을 맡게 되신 김호현 회장님, 잘 계시지요?

제가 회장님하고 몇 가지 사업을 같이 벌여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간혀버렸습니다.

사업은 범민련 일꾼들이 잘 도와서 해 나갈 것입니다.

집회를 마치고 맥주 한 잔 하던 생각도 나고, 산행 후에 뒤흔어하던 생각도 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같이 술도 한 잔 하곤 했는데 언제나 다시 술 한 잔 할 수 있게 될지, 출소하면 회장님과 또 술 한 잔 해야겠습니다.

9일에는 안목사님께서 개 한 마리 내기로 했는데 어떻게 잘 진행은 되었는지요.

제가 우리 의장님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의장님을 영똥한 곳에 모셨습니다.

이규재 의장님도 건강하시고 잘 대응하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 밖에서 걱정만 하십니다. '집회에 조직을 잘해야 할 텐데,

전화만 하지 말고 민주노총, 전농 등 직접 방문해서 적극 조직해야 할 텐데' 하는

걱정만 하십니다. 그리고 동갑내기 해순이, 길자, 순석이도 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양심수 후원회 기동들 아십니까.

김지영 부회장님, 모성룡 부회장님, 임미영 사무국장님

모두 안녕하시리라 믿습니다. 성룡이형, 미영누님이

엄청 바쁘시겠습니다. 요즘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이 장난이 아닌데 두 분의 발걸음이 엄청 분주하게 생

졌습니다.
 제가 같이 가서 힘도 되어주고 투쟁도 같이 해야하는데
 오히려 제가 안에 들어와서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다보니까 성질도 나고 울회통일터질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놈들하고 싸우려니 때로는 의연한 척, 때로는 당당한 척, 무시하는 척 앉아있습니다.
 그것도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17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싸움이야 우리가 이기는 싸움 아닙니까?
 저 놈들의 발악이야 마지막까지 져먹던 힘을 쏟아보려는 발악 그 이상도 아닙니다.
 6.15공동선언의 생활력이 온 거래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민족끼리 힘으로 열어가는 6.15통일시대가 머지않아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이뤄낼 것임을 확신합니다.
 처음엔 이놈들이 남북관계도 어려워지고 개성공단에 대한
 해법도 못 찾으면서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 있는데 지금 시기에 왜 범민련을 쳤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
 해보면 이명박 정권은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탄압으로
 일관한다는 판단입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를 건드리면 6.15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지금 꼬여있는 남북관계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남이나 북에게 확인시켜 주게
 되는데도 그냥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형국이나 범민련을 탄압하는 것이 다르지 않고
 무조건 탄압한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귀를 막고 내 길을 가겠다는 것이
 이명박의 판단인 듯 합니다.
 지금은 이명박의 공안정국을 깨뜨릴 힘이 필요한 시기인 듯 합니다.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시민 등 할 것없이 단합된 힘으로 밀어붙여야 할 듯 합니다.
 한 번 밀리면 한 없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놈들의 간첩조작이 참 어란에 소꿉장난보다도 더 수가 보이고 한편으로 한심하지만 보안법은 또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뒤집어 얹지 않고서는 늘 그렇게 되는. 또 연락드리
 겠습니다.
 시원하게 나를 죽여라
 권력을 빼앗길까 두려워
 전전긍긍 하면서
 국가보안법 움켜쥐고 있는 자들아
 내 머리를 뒤집어 법정에 세우려거든
 차라리 내 목을 자르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떠벌이면서
 반복대결로 6.15통일시대를 뒤엎으려는 자들아
 간첩이니 지령수수니 회합통신이니 어찌구
 지껄이지 말고
 시원하게 나를 죽여라

- 2009.5.24 서울구치소에서 이경원 올림

최은아님의 편지

양심수 후원회 여러 선생님들께.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최은아입니다.

며칠 전 구치소로 양심수 후원회에서 보내주신 소식지와 민족21 이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업과 공간에서 함께 하며 큰 힘 얻고 있었는데, 이렇게

구치소 안에서 양심수 후원회 분들의 마음과 손길을 느끼게 되니, 더 큰 힘 받게 됩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야 이제 모두가 반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천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 1인시위로, 대책위 구성으로, 규탄 집회로 언제나 앞장서서 노력해주시는 여러 선생님, 회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들은 지난시기 있었던 남북 민간단체 교류나 만남, 공동행사들에 대해

지령 수수니 뭐니 하면서 난도질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논리대로라면

정부와 현대아산이 추진한 개성공단사업은 북의 지령에 따른 것이고, 경의선 동해선 복원사업도 마찬가지 이겠죠.

‘연대와 ‘단합’, ‘공동사업’ 이 어느 한편의 주장으로 가능하거나 ‘지령’ 따위로 매도할 수 없다는 것을 저들도 모르지 않음에도,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통일운동의 기본정신과 활동방식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MB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면서 물만난 고기처럼 설치고 있으나

통일을 향한 거래의 염원도 모이고 단합하려는 본성적 움직임도 가로막을 수는 없겠지요.

이제 얼마후면 6월 15일 이네요. 어려운 조건에서도 분투하고 계실 밖의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저도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 2009.5.31. 최은아 올림

모성용 부회장님께

안녕하세요? 반가운 서신을 받고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1인 시위 소식도, 한겨레 신문광고들도 가슴뜨겁게 전해 듣고, 또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구속자가 생길 때마다 열일 제쳐두고 함께해 주시는 양심수 후원회 여러 선생님, 회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온지도 3주가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안 흐르는 듯하면서도 어김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검찰조사를 거부하고 구치고 생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싸움다운 싸움을 못하고 있어서 민망할 따름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큰 사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는데, 오만하고 폭압적인 MB정권이나, 대책 없이 시간 끄는 오바마 정권이나 머지않아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 지 체험한 후에나 정신을 차릴까요?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는 듯 합니다. 이제 곧 6월입니다. 노동자 투쟁도, 대국회 투쟁도, 남북관계도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은 싸움일 텐데, 모두 건강히,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함께 투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충전하고 채워가겠습니다.

- 2009. 5. 28. 최은아 올림

장민경님의 편지

<획일화된 독재체제의 부활, 국가보안법>

- 장민경

한국전쟁이 끝난 1950,60년대에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에라이, 더러운 세상...” 탄탄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갔습니다. 일명 ‘막걸리 보안법’입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난 2009년,

“전쟁광 부시 반대한다”, “615공동선언 이행하자”, “자주,민주,통일세상이루자”라고 했다고 눈도 안뜬 새벽에 장정 열댓 명이 우르르 집안으로 쳐들어와 끌고 갑니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내는 코메디같은 현실입니다.

국정원조사와 검찰조사를 받는 거의 한 달 동안 수백 번 귀가 닳도록 들은 것이 “자유민주체제의 기반과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정을 알면서도.....”입니다.

어린이날 통일마당 행사도, 통일학교도, 각종 통일강연회도, 북한 바로알기행사도, 합법적인 방북도 모두 국가의 존립, 안정을 위태롭게 하기 위함이며 북한에 동조,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조사내용 하나 하나 모두가 확인화되어지는 논조와 남쪽의 통일운동을 북의 조종을 받는 아무개념없는 허수아비로만 바라보는 공안당국의 관점에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냉전논리가 넘대림이 사라진지가 언제인데, 세계는 지금 자본주의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21세기인데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한심한 논리로 사람의 생각과 행동, 인신을 구속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느 시대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보자면 자유민주체제의 기반과 국가의 존립과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입니다.

다양성이 서로 존중되고 소통하는 것이 자유민주체제의 본질이며 한국가가 끊임없이 발전하여 번영을 이루는 것이 그 국가의 존립방식이고 안정을 위한 기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은 국가가 시대와 역사에 맞게 지속적으로 변양?발전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낡은 것을 고쳐 새로움을 만들고, 잘못된 것을 비판하여 옳은 것을 들이며, 대립과 갈등?분단을 거두고 화해와 협력?통일을 이루는 것이 시대의 발전입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이념대립을 앞세워 ‘레드컴플렉스’, ‘북한노이로제’를 부추겨 우리사회의 발전과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발전’은 존재하기 위함이며, ‘정체’는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다시말하면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을 아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와 정상외교관계를 맺고 한국가로 존재하고 있는 북에 대해서 국가가 아닌 일개 한 ‘문제 있는 단체’로 치부하는 ‘반국가단체’라는 규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으며 유일하게 ‘국가보안법’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615공동선언’과 2007년 ‘평화와 번영을 위한 10.4선언’ 역시 현 정권에서는 반국가단체와 모략을 한 이적표현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 죽어가던 국가보안법 명령이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독재로의 회귀, 역사의 후퇴, 민주주의의 사망선고, 각종의 악법들을 다시 살려내고, 새롭게 제정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권이 자신의 정권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소통과 신뢰로 국민들에 의한 국정운영을 하지 못하니 악법으로, 곤봉과 방패로 국민을 다스리려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자유민주체제를 떠받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획일화시켜 규제하는 독재체제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권의 말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잠깐의 난관에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역사의 발전은 필연이고, 민중의 전진은 막을 수 없습니다.

민중의 손으로, 국민들의 힘으로 국가보안법을 꼭 폐지시켜 독재가 판치 못하는 소통이 되는 세상, 민주가 살아있는 사회, 통일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믿음과 희망으로 꼭 승리합니다.

- 2009. 5. 31 청주여자구치소에서 6.15충북본부 집행위원장 장민경

조규창 님의 편지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조규창입니다.

보내주신 우편물과 영치금 정말 감사합니다

일찍 감사편지를 보냈어야 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잊고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도 양심수로 수감 중인 분들을 후원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들어 양심수분을 많이 보면서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고 있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벌금 20만원이 없어들어오시는 분들부터 경찰의 어이없는 몰아붙이기식 수사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
서, 공안정국이 뭔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과정에서도 몰아붙이는 식의 수사를 여러번 본 적 있어 인권이란게 진정 존재하는지 의구심
마저 들었습니다. 저도 한동안 인터넷상에서 방송을 해본지라

현장에서도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명동성당에서는 노트북에 웹캠을 장착해 방송하다가 사복들에게 웹
캠을 뺏기기도 했고 한 번은 홍준표 원내대표 보좌관에게 노트북을 테러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홍준표 감자탕집 동영상으로 복수를 했습니다.

홍준표 감자탕ucc를 만든 게 저입니다

그때 한창 고소니 뭘니 말이 많아서 한동안은 조심스런 생활도 했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처음으로 한나라당대표와 그 자리에 있던 의원들을 당선시켰으니 나중에 저보고 사이버테러범이라고 하더
군요. 뭐 후회는 안합니다.

욕을 들었으나 한편으론 네티즌들에게 통쾌함을 안겨준 것 같아서 기뻐했습니다.

수감생활이 끝나도 다시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갈까 합니다.

경찰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펜을 놓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리로 나갈겁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쓸 것은 많은데 막상 쓸려니 어려움이 많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조만간 다시 편지드리겠습니다. 양심수후원회에 항상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 6월 6일 서울구치소에서 조규창 드림

장민호 님의 편지

존경하는 권오현 명예회장님!

그리고 김호현 신임회장님과 일꾼 동지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민호입니다.

소식지를 통하여 명예회장님의 추대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멀리가시는 것도 아닐터인데 임동지께
서 울먹이며 노래를 하셨다는 글을 읽고 저도 팬시리 허전합니다.

뽀뽀하게 소식지에 쓰여진 명예회장님과 후원회동지들의 투쟁의 기록들은 언제나 저에 대한 채찍질이 되
곤 하였습니다.

그동안 그 동안 먼 길 찾아주시어 크나큰 격려와 배려를 주셨던 명예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리며 존
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직접 찾아뵈어 큰 절을 드릴 그날 까지 무탈 건강하셔야 합니다.!!!

지난 달에 먼길 오셔서 격려하여 주신 임동지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나눌 얘기는 너
무 많았습니다

동지의 말씀대로 단결에 대한 글 한편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소 길고 장황한 것 같아 송구스럽습니다.

모두들 무도한 저들에 맞서다 다치지시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7,8월의 태풍의 눈은 동지처럼 노급 혹은 노급

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아가는 동지들입니다.(저는 통일노동자이고요)
다시 한번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 2009년 6월15일 대전교도소에서 장민호드림

전수민님의 편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심수후원회 선생님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조금 더 일찍 인사를 올려야 옳았습니 다만 만기를 몇일 앞두고 인사드림을 용서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촛불시위 양심수 전수민이라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후원회 여러분과 억울하게 구속된 동지분들에게 안부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법부의 말도 안되는 판결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이곳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에 있는지 분개할 노릇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과 이념을 가진 동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를 억압당하는 그곳 바로 교도소와 구치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 생활하시던 어떤 선생님도 구속당시 저희같은 촛불시위현장에서 구속된 사람과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그분은 저희와 정반대되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먹고 살 만하니까 쓸데없는 것한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서 저에게 따뜻한 말과 함께 저희에 대한 생각이 옳다고 보시는 편이라고 하십니다. 나이드신 분도 생각이 바뀌어 가는 지금에 멍**같은 사법부는 아직도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옛사고 방식에 빠져 헤어 나오지를 못하니 어떻게 된 것인지 참으로 슬프고 억울할 뿐입니다.

지나 수감기간 내내 보내어 주신 사랑과 열정에 대하여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동지 여러분의 피의 땀과 후원금으로 영치금과 영치품을 보내주시어 지난 겨울 따뜻한 정을 느끼며 피눈물을 삼키며 보내야 했습니다. 밖에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 운동시간이면 사람 목소리도 들리지만 두꺼운 담 하나를 두고 자유와 억압의 세상이 공존하고 또한 세상과의 단절을 위해 차디찬 철창 안에 가두어놓고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에서 행할 수 있는 행동인지가 다시 한 번 더 궁금해집니다. 전국 50여개나 되는 구치소, 교도소에 구속되고 재판 계류 중인 양심수들에게 인사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죄송합니다.

저는 벌써 9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자유를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심수와 동지 여러분의 희망을 되찾고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끝까지 이 한 몸 다바쳐 투쟁하고 단결하여 싸워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땀흘려 일하다 한순간에 실수 아닌 실수로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내본 결과 어떤 분들은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에서 조금만 아니 한 번만이라도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너무도 간절합니다.

그분들 말씀이 MB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노무현 전직대통령의 서거 후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북에서는 북대로 난리고

MB는 MB대로 난리고 참으로 걱정된다고 말씀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쓰다보니 많이 헛갈리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열심히 땀흘려 일하시는 분들의 세상이 와야 하는데 말입니다. 양심수후원회 선생님들의 정성어린 마음으로 그간 보살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이 한몫 바치겠습니다. 앞으로의 저를 지켜봐주십시오. 전국에 계시는 후원회 여러분 감사드리고 양심수여러분 우리모두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파이팅!

- 2009.6.17일 영등포교도소에서 풋볼 양심수전수만올림
※저의 만기일은 7월 8일입니다.



고맙습니다

●광주5.18행사때 최장렬선생님께서 후원회비와 맛있는 딸기 큰 두박스를 선물해주셔서 (유난히 달고 맛있는) 잘 나누어 먹었습니다.

●민가협 유민호어머님께서 회원월례시사강좌의 뒤풀이 음식으로 돼지고기 장장 20킬로그램을 선물하셨습니다. 손수 필요한 야채까지 다 장만해 오시느라 엄청 고생하셨는데 .. 덕분에 그날 뒤풀이 아주 훌륭한 상차림이 되어 밥반찬과 술안주까지 다 해결되었습니다. 분당에 계신 홍성순어머님께서도 뒤풀이 비용으로 쓰시라고 후원금을 내놓으셨습니다. 또 변외성회원과 평택의 정혜은회원은 불고 노랑게 잘 익은 과일을, 또 용인의 허영란회원은 역시 솜씨 만만찮은 김치 가득 가져오셨습니다, 많은 도움 덕분에 그 내용의 질과 양에 있어서 매우 흡족한 시사강좌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달 씨엠에스회원가입 회원(4.5월) 명단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씨엠에스가입으로 양심수후원회에
힘을 보태주신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훈철님, 전미리님, 조숙희님, 양삼봉님, 박종기(출소양심수)님, 이원갑님, 배정환님,
정현근님, 김재현님, 탁무권님, 이용준님, 박유경님, 여혜정님, 최범림님

관악산에 오르다

나순석 | 회원



아 람이 올린다. 눈을 떴다. 아...피곤하다오늘은 관악산산행이 있지. 잠깐의 망설임(더 자고싶은 유혹)어제 통일 뉴스후원주점 행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어울리다 보니깐 귀가가 늦어서 늦게 잠자리에 들었더니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었다. 유혹은 잠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 배낭을 메고 약속장소인 낙성대역으로 향했다. 낙성대역에 도착하니 오전 9시 정각이었다. 먼저와 계신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인원 체크를 하니 인원이 몇 명이 안 되네. 어제 행사가 있어서 그러나 하는데 범민련 회원 한 분이 오셔서 지방에서 행사가 있어서 산행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면서 깃발과 깃대를 주고갔다. 회원들이 도착하고 산행을 시작했다. 도시락 안싸올 회원들의 김밥과 막걸리, 간식거리를 챙기고 등산로로 향했다. 이제 출발한지 얼마 안됐는데 힘드네! 등산로에 진입할 때쯤 늦게 도착한 외원도 만나서 산을 오르다 보니 땀이 난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하였는데 회원 한분이 강원도에서 직접 담가서 보내준 막걸리를 한잔씩 하니 땀도 식고 다시 힘이 솟는다. 다시 출발 서로 격려 하면서 오르다 보니 운동시설이 갖추어진 약속터가 보였다. 휴식을 취하는데 작년에는 권오현 선생님께서 평행봉 시범을 보여주셨는데 교통사고 후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섭섭했다. 휴식이 끝나고 약속터 옆으로 난 제법 경사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기로 하였다. 다들 숨을 헐떡거린다. 어느 산에나 깔딱 고개라 불리는 곳은 있는 모양이다. 서로를 격려

하면서 능선에 도착하였다. 뱃속에서 신호를 보낸다.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하고 적당한 장소를 찾아 각자 가져온 음식과 술 간식거리를 내놓고 점심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나고 산상강연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산행에서는 강연하실 분이 없어서 서로간에 자유로이 하고싶은 이야기를 하였다. 유영호 회원은 서평방송을 보면 다부작 이북영화를 볼수 있다고하고 어느 회원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기도 하였다.

식사 끝나고 사당역 쪽으로 하산하기로 하였다. 산행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 오르기보다 내려가기가 더 힘들다. 조심해서 무심히 산을 내려왔다. 뒤통이를 하기 위해서 사당역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 서울 시립 미술관 남서울 분관이 있었다. 이곳은 회원동에 있던 벨기에 대사관을 해체해서 이곳에 복원을 한것이라 한다. 사진 전시회 였는데 작가의 의도를 알수 없으니 대충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뒤통이 장소로 이동하였다. 적당한 곳에 장소를 정하고 산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TV에서 노전대통령에 서거에 관한 안타까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제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서민적인 대통령의 참 모습을 보여준것 같은데.... 바보 노무현 뒤통이도 끝나고 회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산행에도 더 많은 회원님들과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되길 기원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009년 6월 20일 | 구노회 양심수후원회 조사집계

이름	소속	직책 (구속당시)	사건 명	구속 날짜	수감 지	재판 상황	만기 일
김 대 수	범한택시노조	대의원 범한	택시노조 민주화 투쟁	2004.2.13	영등포교 1071	기결(10년)	2014년 2월
강 봉 희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합원	리파즈 코리아 단협 위반항의	2009.4.9	울산구 34	미결	
강 준 희	화물연대 광주지부		故 박종대 열사추모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 847	미결	
강 진 구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2008.9.27	서울15	2년6월	항소중
권 승 우	인터넷 카페 열혈국민 회원	비정규직	촛불항쟁(명동성당 앞 투석전)	2008.9.	춘천교 2002	기결(10월)	2009년 7월
권 영 기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조합원	08년 6월 건설기계 총파업(제천투쟁)	2008.9.4	청주교 329	기결(1년)	2009년 9월 3일
김 경 수	화물연대 충남지부		故 박종대 열사추모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 1823	미결	
김 기 주	화물연대 광주지부		故 박종대 열사추모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 1634	미결	
김 대 원	울산4구역 상가철거민대책위원회		울산 4구역 상가 철거민대책(울산 대참사)	2009.1.20	서울구 187	미결	
김 덕 수	화물연대 전북지부		故 박종대 열사추모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 3277	미결	
김 영 호	민교협		전성군 관대교수 이른바 석궁 사건	2007.1.17	의정부교 2068	기결(4년)	2011년 1월
김 문 정	수원 촛불시민	건설 일용직	용산참사 규탄 촛불집회	2009.4.30	수원구 305	미결	
김 세 환	화물연대 포항지부		故 박종대 열사추모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 3094	미결	
김 승 철	인터넷 카페 열혈국민 회원	비정규직	촛불항쟁(명동성당 앞 투석전)	2008.8.17	원주교 212	기결(10월)	2009년 6월
김 재 호	울산4구역 상가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	울산 4구역 상가 철거민대책(울산 대참사)	2009.1.20	서울구 171	미결	
김 주 환	울산구 신계동 철대위	회원	울산 4구역 상가 철거민대책(울산 대참사)	2009.1.20	서울구 20	미결	
김 철 남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합원	리파즈 코리아 단협 위반항의	2009.4.9	울산구 36	미결	
김 종 열	화물연대 부산지부		故 박종대 열사추모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 3077	미결	
김 대 연	울산4구역 상가철거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	울산 철거민 살인진압 항의투쟁	2009.3.20	서울구 66	미결	
김 흥 백	화물연대 광주지부		故 박종대 열사추모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 1682	미결	
김 복 기	재야	청학연대	이적표현물 사건	2008.9.27	서울179	10월	항소중
김 성 일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2008.9.27	수원302		
김 성 철	재야	전철연(정금)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1.23	서울161		
김 영 익	노동자	저항의 촛불 기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09.2.27	영등교 428		
김 재 진	노동자	노동자	민주노동당(전남) 양심노동조합 설립 관련	2008.4.4	광주교 3326	1년6월	항소중
김 재 호	재야	전철연(울산4구역)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2009.1.23	서울171		
김 대 연	재야	용산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	용산추모집회 주도	2009.3.23	서울구 66		
김 학 주	이주노동자(중국교포)	국가보안법 위반단		2005.10.	전주교 2509	기결(5년)	2010년 10월
김 홍 일	노동자	미국집단지행 국민행동	용산참사 규탄 촛불집회	2009.1.3	서울구 90	미결	
김 OO	재야	개인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2008.8.28	서울173		
김 OO	재야	개인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2008.8.28	서울89		
남 대 영		건설기계 광양	故 박종대 열사추모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 1278	미결	
민 철 식		촛불연행자모임	용산살인진압규탄집회	2009.4.21	서울구 193		
박 상 호	화물연대 대경지부		故 박종대 열사추모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 2140	미결	
박 정 대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방향후개소노조 연대투쟁(법정구속)	2008.4.29	충주교 460	기결(1년6월)	2009년 8월
박 중 만		실업노동자	용산참사 규탄 촛불집회(3/7)	2009.3.11	서울구 7	미결	
박 철 손	촛불시민	2009 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	서울구 155	미결		
박 경 식	재야	개인	일심회	2007.2.1	광주교 5051	3년6월	2010년 8월 1일
백 형 근	전해투	전 조직국장	08년 용산 철거민 투쟁 연대	2009.5.27	영등포구 2737	미결	
블라미르	이주노동자/공고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신민정 소송 중	2007.1	화성보호소		
손 정 목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4	대구교 45	4년	2010년 10월 1일
신 성 원	금속기아차량성내내회분회	전 부지회장	07년 경기지역 이젠택 파업투쟁	2008.10.12	평택구 203	미결	
심 상 덕	촛불시민		2009 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	서울구 141	미결	
안 후 진	화물연대 전북지부		故 박종대 열사추모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 431	미결	
안 홍 열	학생	대 학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08.6.23	청송제2교 1144	1년6월	2010년 2월 1일
양 대 조	민주노총 조직실장		뉴코아-01랜드/원미FTA 반대 집회 등	2008.1.7	여주교 270	기결(2년)	2010년 1월
여 민 희	전국학생노동조합교육지부	조합원	故 박종대 열사추모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서울구 599	미결	
오 성 택	화물연대 광주지부		故 박종대 열사추모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 3123	미결	
오 장 석	화물연대 서경지부		故 박종대 열사추모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 585	미결	
원 호 연	촛불시민		메이데이/촛불 1주년 기념 행진	2009.5.2	서울구 195	미결	
유 용 완	화물연대 전남지부		故 박종대 열사추모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 1791	미결	
유 정 희	원일교통노조	해 고노동자	원일교통노조 민주화투쟁	2008.9	영등포구 2729	항소중(2년)	
윤 석 무	촛불시민		메이데이/촛불 1주년 기념 행진	2009.5.2	서울구 183	미결	
윤 인 고	화물연대 부산지부		故 박종대 열사추모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 1184	미결	
윤 기 진	재야	범청학련	범청학련, 한총련 불탈퇴(7/7)	2008.2.28	서울구 96	3년	항소중

이름	소속	직책(구속 당시)	사건 명	구속 날짜	수감지	재판 상황	만기 일
윤형 남	노동자	식칼테러희생자	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5	서울구 57	미결	
이 **	전문직		용산참사 규탄촛불집회(3/7)	2009.3.23	서울구 209	미결	
이강우	화물연대 울산지부		故박종대 열사추모 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 2750	미결	
이규재	법민련남측본부(건설산업연맹)	의정(지도위원)	국가보안법 위반건	2009.5.10	서울구 97	미결	
이동훈	화물연대 충남지부		故박종대 열사 추모 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 320	미결	
이상국	화물연대 울산지부	조합원	라파즈 코리아 단협 위반 항의	2009.4.24	울산구 32	미결	
이상호	인타넷 386 모임	대표(사무직)	애국촛불전국연대 공인탄압(서울청 광역수사대)	2009.6.2	서울구 105	미결	
이영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전 수석부위원장	미포조선 용인기업원직복직투쟁/고공농성	2009.2.9	울산구 36	미결	
이종우	광진상동 촛불 아용이		2009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	서울구 147	미결	
이주봉	화물연대 부산지부		故박종대 열사추모 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 1922	미결	
이진숙			촛불추모집회	2009.3.7	서울구 209		
이충연	용산4구역상가공사철폐위	위원장	용산4구역 상가 철폐반대투쟁 용산 대참사	2009.1.30	서울구 29	미결	
이희만	전국플랜트건설 포항지부	조합원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 등	2007.9.26	포항교 30 10	기결(1년+1년6월)	
이길준	군인	의경	촛불집회진압 양심선언	2008.8.7	서울구 2467	2년	
이라즈			이주노동자경제단속(난민인정 소송중)	2005.1.29	화성보호소	행정소송 중	
이정훈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2006.10.24	전주교 25 10	3년	
이진강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6	안동교 30 10	3년	
인태순	전국철거민연합	연사위원	용산철거민 참사 규탄 투쟁	2009.3.3	서울구 24 1	미결	
임수범	건설기계 광양		故박종대 열사 추모 노동자민중대회(09.5.16)	2009.5.18	대전교 1594	미결	
임OO	재야	개인	용산추모집회 참가	2009.3.10	서울구 67		
장순원		개인	용산참사 촛불집회	2009.2.4	영등포구 3403	미결	
장영희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용산철거민 참사 규탄 투쟁	2009.4.27	서울구 216	미결	
장민호	재야	개인	일심회	2006.10.24	대전교 4009	7년	
전도한		촛불시민	2009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	서울구 186	미결	
전수민	인타넷 카페 열혈 국민회원	비정규직	촛불항쟁(명동성당앞 투석전)	2008.9.11	영등포교 976	기결(10월)	
전승욱	전국발전노조	해고노동자	애국촛불전국연대 공인탄압(서울청 광역수사대)	2009.6.2	서울구 137	미결	
전준범		촛불시민	메이데이/촛불 1주년 기념 행진	2009.5.2	서울구 115	미결	
전OO	재야	개인	광우병 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9.11	특공		
정삼례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용산철거민 참사 규탄 투쟁	2009.4.27	서울구 243	미결	
정영철	재야	개인	천안고무 사건	2008.1.25	서울153		
정창수	재야	개인	07년 한미 FTA 문서공개	2008.12.19	서울구 3750	9월	
조규창	촛불시민 프라팬서 기자		2009.5.2	서울구 45	미결		
조순동	화물연대 대전지부	지부장	망향휴게소노조 연대투쟁 / CJ물류 파업	2008.4.29	순천교 1280	기결(1년6월)	
조익렬	화물연대 부산지부	지부장	故박종대 열사추모 노동자민중대회	2009.5.18	대전교 987	미결	
조인환	성남 단대동 철대위	회원	용산4구역상가 철폐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09.1.20	서울구 145	미결	
지승환	촛불시민(장애인)		메이데이/촛불 1주년 기념 행진	2009.5.2	서울구 107	미결	
천동근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전 조직부장	08년 하이닉스-메그나칩 비정규직 투쟁	2009.2.23	공주교 1304	기결(1년6월)	
천춘배	운수노조 화물연대부산지부	조합원	08년 6월 화물연대 총파업	2008.10.21	부산교 415	기결(1년+8월)	
최국종		실업노동자	용산참사 규탄 촛불집회(2/4)	2009.2.4	영등포구 3458	항소중(3년)	
최병승		금속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현대미포조선 비정규직복직 투쟁	2009.5.16	울산구 33		
최기영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2006.10.26	대전교 3004	3년6월	
최한욱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 사건	2008.9.27	서울76	2년	
최OO	노동자	일간지 지국장	광우병 쇠고기반대 촛불집회	2008.6.6	전기통신기본법	10월	
하진호	촛불시민		2009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	서울구 71	미결	
허현무	민주노총 정치국장		2009메이데이 촛불집회	2009.5.2	서울구 109	미결	
Zm lark	이주노동자/버마		이주노동자경제단속(난민인정 소송중)	2009.3.18	화성보호소		
이경원	재야	범법본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위반관련	2009.5.10	서울구 63		
최은아	재야		국가보안법 위반관련	2009.5.10	서울구 221		
윤주형	재야		국가보안법 위반관련	2009.5.10	청주구 536		
장민경	재야		국가보안법 위반관련		청주여지구 83		
오순완	재야		국가보안법 위반관련		청주구 9		

01

☞ 용산미군기지 5번 게이트 앞에서 '평통사 주최로 "미군철수 보장책, 미군가족주택 임차료 부담 강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이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미2사단이전비용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으로도 모자라 미군가족주택 임차료가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아주 굴욕적인 일'이라고 비판하다. 삼성물산전소시업은 삼성물산, 미국 군용주택 전문 개발업체인 퍼니클사와 헌트사, 재무적 투자자로 메릴린치,뱅크오브아메리카, 스미토모미쓰이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119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자 농민시민사회단체 회원, 네티즌 등 4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119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조직위원회 주최로 '제 119주년세계 노동절범국민 대회'가 열리다. 민주노총 신승철 사무총장의 사회로 각계각층 동영상 인사말에 이어 임성규 민주노총위원장의 사회로 연대노총으로 거듭 나겠다는 대회사 낭송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이원기 의장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발언을 통해 '반 MB연대'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하다. 5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119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는 6월 MB악법을 실질적으로 폐기시키고 민중생존권과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는 백만촛불의 승리를 향해 '10대 요구안'을 발표하다. '10대 요구안'은 △1% 특권층 편향 정책 중단 및 민생정책 시행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중단 및 최저임금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정책 실시 △전국민 실업안정망·사회안전망 구축 △일방적 구조조정 및 해고 행위 중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중단 및 MB식 농어업선진화 정책 폐기 △반값등록금 이행, 무상교육·무상급식·무상보육 실시 △민주노조탄압 중단 △용산문제 즉각 해결 및 뉴타운·재개발 중단 △언론법 개악 등 MB악법 폐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FSI) 전면 참가방침 철회 및 615, 104 선언 이행 등이다. 노동절대회 2부는 김일환 영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사회로 촛불을 가장 먼저 주도했던 청소년들이 발언과 공연을 하다. 촛불자킴이 다인아빠, 용산 유가족들도 무대 위로 올라 이명박정권규탄 발언을 하다.

☞ 서울 종로 일대에서 119주년 노동절이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일어난 지 1주년을 맞아 5.1 노동절 대회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회원, 대학생 네티즌 등 2천여 명이 여의도에서 대회를 마친 후 종로3가 지역에 집결하여 가두시위를 벌인다. 경찰이 무장하고 시위대를 막아서자 수 백명 단위로 나눠 종로 3가에서 5가 곳곳에서 "독재타도! 명박퇴진!" "이명박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게릴라식 시위를 전개하다. 오후 6시께부터 지하철 1호선은 시청역을 무정차 통과했고, 시청·종각·종로5가 등 주요 지하철역에는 경찰병력을 배치해 시위대들의 도로 진출을 원천봉쇄하다. 특히

시위대의 도로진출을 저지하고 시위 가담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춧가루 추출물인 '캡사이신' 분사기(휴대 스프레이형)와 유색 분사기를 사용하고 명동에서는 격렬한 투석전이 일어나 경찰이 집회를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70여명이 연행되고 부상자가 속출하다. 또 경찰은 <참세상> 등 취재기자들을 폭행하고 사진기자들의 카메라를 방패로 고의적으로 막아 일부 기자들의 장비가 파손되기도 하다.

02

☞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1돌을 맞아 서울역광장에서 촛불시민연석회의가 주최한 '촛불 1주년 범국민대회'와 이어져 진행될 용산반대위 주최 '촛불과 함께하는 범국민추모의 날' 행사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참가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다. 경찰은 이날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161개 중대 13,000여 경찰병력을 동원 서울역광장 등 도심 주요지점을 원천봉쇄하다. 또한 오후 4시 김경한 법무장관, 이달곤 행안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있을 집회와 시위는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하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을 서울역 1번출구 앞 경찰병력을 밀어내고 집회를 열다. 500여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에 이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문정현신부의 여는 말에 이어 경제위기에 맞선 대학생공동행동의 수진단장, 이종걸 민주당국회의와 용산참사 관련사건 권영국 변호사 등 결의발언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5.2 촛불1주년 행동의날 투쟁선언문'에서 '각종악법을 강행처리해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고 민주시민의 정당한 저항을 압살하려한다. 이명박 정권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경찰의 제지를 뚫고 청계광장에서 만나며 집회장소로 빠져나간다. 그러나 시청역 출입구를 경찰이 틀어막고 있었으며 시위자의 서울광장 접근을 가로막다. 태평로 인도에 모여있던 시민들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퍼레이드 준비를 지켜보다 자연스럽게 태평로 차도에 뛰어들어 순식간에 도로를 가득 메우다. 경찰이 진압태세를 갖추자 서울광장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합류하다. 다시 깃발이 세워지고 촛불이 밝혀지다. 1년만에 다시 시청광장에 촛불을 밝히며 장악하다. 그러나 경찰은 촛불시민들을 폭력으로 강제연행하기 시작하다. 일부시위자들은 명동으로 옮기면서 '이명박은 물러가라' '민주주의 쟁취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열고 행진에 들어간다. 경찰은 토끼몰이식으로 몰아붙이며 폭력연행을 자행하다. 이날 밤 늦게까지 시청광장에서 88명, 명동에서 30여명 등 105명이 강제연행되다.

☞ 관악구 보라매 공원에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주최로 '등록금 인하 청년실업해결 이명박 심판 대학생대회'를 열다.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1,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예술계·이공계·전한련(전국 한의과대학 학생회연합)·교대협(전국 교육대학생대표자회의) 등 대표자들은 고액의 등록금 인하와 수업환경개선, 의료민영화반대, 사법대·교대 통폐합 반대 등을 요구하다. 지난 4월10일 눈물의 삭발식에 참가했던 한아름 홍익대총학생회장, 이원기 한대련의장의 결의발

언과 결의문에서 '오늘 우리의 투쟁으로 전국민의 가슴에 촛불을 밝히고 이명박 정부삼판을 위해 모든 국민이 나설 수 있게 하자'고 다짐하다.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박의춘 외무상이 지난달 29일 쿠비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조정위원회 각료급 연설에서 '6자회담 불참'과 '강력한 전쟁억제력 확보에 힘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의 2일 보도를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박의춘 외상은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가 국제법 위에 군림하는 강권과 전횡의 도구로 전락되었다'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의 호상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부정해 나선 이상, 우리가 함께하는 6자회담은 더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하다. 한편 비동맹회의에서는 '인공위성발사에 유엔안보리 제재는 부당하다'는 이북의 입장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되다.

03

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써 놓고 잠적했던 화물연대 광주지회장 박종태씨가 실종 5일 만인 3일 낮 12시께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되다. 민주노총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광주지부 박종태 지회장이 29일 새벽 최근 재벌그룹의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 중인 대한통운택배분회의 투쟁이 답보상태인 것을 안타가워하면서 더 힘있는 연대투쟁을 호소하는 글을 노조사무실에 써 놓고 잠적했다. 박 지회장은 이날 낮 12시께 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 맞은편 숲속 아카시아나무에 목을 매 숨지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고인이 목을 맨 나무에 '대한통운은 노조탄압 중단하라'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신은 대전 중앙병원에 안치돼 있다. 박 지회장이 남긴 글에서 투쟁을 호소했던 대한통운택배분회는 대한통운 광주지사에 소속된 택배기사들로 지난 3월 16일 78명의 조합원을 휴대문 문자메시지로 집단으로 계약해지 당해 파업 투쟁 중이다.

이북의 주간지 통일신보 최근호(5.2)는 지난달 21일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남측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 땅에서 전쟁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통일신보는 "언제 어디서 어떤 충돌이 일어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 북남관계이고 조선반도의 정세"라며 "이런 속에서 남조선이 PSI에 전면 참가하려 하는 것은 화약다미 위에서 불안탄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이고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비난하고 이어 "공화국은 이미 남조선당국이 PSI에 전면 참가한다면 그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그에 대처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데 대해 명백히 천명했다"면서 "그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북의 <로동신문>은 '최근 우주과학기술의 발전 동향'이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4월 5일 발사한 '광명성2호'의 의의를 이렇게 "실용통신위성을 위하여 개발한 위성"이라고 밝혔다.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아울러 이 신문은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가 성과적으로 발사됨으로써 앞으로 실용통신위성의 발사와 그를 운영하기 위한 기술, 자세조종기술, 관제기술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통신 기상관측 측지 지구자원탐사 등에서 실질적인 쓰임의 예를 들면서 "우주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하여 전자공학, 집적회로기술, 재료기술, 조종기술, 암호화기술, 관측기술 등 연관분야의 기술발전이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신문은 이번 '광명성2호'를 "100%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으로 개발하여 발사했다면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번에 위성발사와 궤도진입을 단번에 성공함으로써 최첨단 과학기술의 높은 영마루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나라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다"고 하다.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난달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에서 '북한의 우발상황(금번사태)에 대비한 계획(plan)을 준비 중'이고 "한미는 작게 5027과 5029를 통해 즉응전투태세를 유지하게 될 것"(파워포인트 자료)이라고 말했으며, 우리 군 당국자들도 이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 데 대해 "후조도 용납할 수 없는 적대행위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선로"라며 이에 대응해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조평통은 샤프 사령관의 발언은 "작게 5029를 이미 전에 완성했으며 오늘에 와서는 그 실행단추를 누르려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도발자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다시는 놓치지 않고 무자비한 정벌을 가해 조국통일의 세기적숙망을 실현하고자 할 것"이라고 하다.

04

서대문경찰청 앞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 한국진보연대 등 100여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노동절 및 촛불 1주년 경찰 과잉진압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시작부터 경찰이 저지해 40여분간 기자회견이 열리지 못했다. 이후 경찰청민원실 앞에서 명숙 인권단체연석회의의 활동가 사회로 이규재법남본 의장의 여는 말 5.1~2일 강제연행피해자의 사례발표 정의현 민주노총수석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을 활동경찰은 참가자들이 구호와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3차 해산명령을 내린 후 정의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이광렬 구속노동자위원회 사무국장 등 6명을 강제연행 등을 연행하다. 한편 노동절과 3일까지 241명을 연행했고 그 중 1명이 구속 4명이 구속영장 신청하다. 임미영사무국장은 즉시 영등포경찰서로 가 조사중 대기하고 조사마친 후 연행자 전원 면회하다.

용산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통사 주최로 시민사회단체 성원

들이모인 가운데 '미군가족 사용 민간임대주택 임차료 지급 보증에 나서는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박석분 평통사 회원사업팀장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등은 발언을 통해 한국 정부가 미군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은 이에 대해 미국 부담을 명시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가 전협정,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참가자들은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읽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 국방당국이 밀실에서 벌이는 임대기간 논의의 진상 공개 요구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추가적으로 지우는 문제에 대해 국회가 나서서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대전 대덕구 읍내동) 앞에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는 고 박종태 열사 정신계승과 악덕자본 대한통운 규탄 및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를 위한 화물연대 확대간부 투쟁 결의대회를 열다. 결의대회에는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전국의 화물연대 확대간부와 노동자 1천여 명이 참가해 "박종태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한통운과 금호그룹에 총파업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결의하다.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 운수노조 조상수 사무처장 등은 열사의 뜻 이어받아 승리의 결의로 진행하고 민주기수 지민주씨는 고인의 영전에 '민들레처럼'을 바쳤으며 이어 대한통운과 경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불에 태우는 화형식을 하면서 결의대회를 마치다.

06

- 종로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는' 지난 4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참가자 강제연행과 관련 경찰기자회견 탄압에 대한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다. 참석자들은 집회참여의 권리와 탄압중단을 요구하며 경찰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기자회견조차 집시법으로 막아서는 회견을 마치고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명숙활동가 등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시키다.

- 영등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등 범진보단체는 고 박종태씨를 기리며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조 탄압분쇄' 기자회견을 열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를 '정부의 민주노조 운동 탄압과 노동기본권 부정, 대한통운의 치밀한 노조탄압과 자본의 황견인 경찰의 폭력이 불러온 비극이자 타살'로 규정하고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과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중단, 운송료 삭감 중단, 원직복직 쟁취 고 박종태 열사 대책위원회(가칭)'을 꾸리고 공동 대응하겠다고 하다.

-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작년 11월 콜텍 본사 점거농성을 벌인 금속노조 콜트, 콜텍지회 모든 조합원에게 불구속 기소하다. 콜트, 콜텍지회 조합원들은 2007년 7월 위장폐업으로 정리해고된 후 복직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콜트, 콜텍지회 조합원들은 작년 11월 25일 서울 등촌동에 위치한 콜텍 본사 점거농성을 벌였으나 경찰특공대 투입으로 농성 5시간만에 마무리되고 조민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부장과 김경봉 콜텍지회 쟁의부장이 구속되다. 그러나 검찰은 2차 항소가 진행 중이던 3월 3일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 18명 모두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 1항에 근거해 집단농기 주거침입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광우병 범대위와 민생민주국민회의(준)공동주최로 '촛불운동 1년 광우병 위험국민대책위 1년 맞이 각계시민사회단체회의 및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위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국민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선언하다. 참가자들은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함께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들 마음 속에 흐르는 평화와 저항의 촛불,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촛불은 언제 어디서나 타고르고 있다'며 '지역과 부문에서, 기층에서 타고르는 촛불, 그리고 촛불과 같은 염원이 마침내 폭발하는 순간 위대한 국민촛불은 평화를 통해서 정권의 기만과 폭력을 제압할 것'이라고 하다.

-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방안을 확정짓다. 기존의 3년지원분 3000만불에 추가로 시설물과 기자재 지원분으로 1950만불, 내년에 추가로 파견되는 60명을 포함한 85명(기존의료지원 직접훈련팀 25명 포함)의 인건비로 매년 1230만불이 소요되는 등 모두 3년간 7,410만불을 지원하기로 하다.

07

- 국가정보원과 경찰보안수사대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간부들에 대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이 규제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씨를 자택에서 체포, 연행하다. 또한 서울 남영동 소재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비롯해서 서울본부와 경기.인천본부, 광주.전남본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는 만행을 저지르다. 또한 최동진 범남본 편집국장, 오미나 전 편집국장, 이태형 전집행위원장, 이현주 전사무차장집들에 압수수색을 하고 오미나씨와 박웅식 광.전연합사무국장 홍안나 경인연합사무국장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하다. 또한 정식으로 본부 사무실이 개설되지 않은 청주지역 관계자 3명과 강원지역 관계자 3명도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청주지역 통일청년회소속 윤주형 충북도연맹조직국장, 장민경 6.15 남측위충북본부집행위원장, 오순환 6.15남측위충북본부 사무처장 등 관계자 3명은 체포된 상태이다. 이날 범남본 압수수색에는 국정원보안수사대원 40여명이 수십명의 경찰경호를 받으며 6시 30분부터 11시까지 데스크탑 본체 15대와 노트북 2개 등을 비롯 각종문서 범민련기관지 '민족의 진로' 1~101호까지 압수해가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범민련 사무국 활동가들과 사회단체성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임미영 모성용 함께 하다.

- 내국동 국정원 앞에서 국가보안법제지국민연대 소속단체

대표들과 회원 50여명은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진보연대 안지중씨의 사회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 이종린 범남본명예회장 임기란 민가협전위원장 전농의 한도숙의장의 규탄발언에 이어 김세창 범남본조직위원장의 경과보고와 반명자 민주노동당 수석 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기자회견문에서 "6.15와 10.4선언을 부정하여 남북관계를 파탄국면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남북 민간급 교류와 협력마저 완전히 차단하고, 진보적 통일 활동 일체를 불법화 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권오현 김호현 임미영 모성용 함께하다.

☞ 용산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무건리주민대책위원회'와 '무건리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국방부의 '무건리 훈련장' 일대 중도위 재결신청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린다. 국방부가 '무건리 훈련장' 확장 예정지인 경기 파주 오현리 일대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강행에 반발하여 국방부는 강제 토지수용을 중단과 합리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주민들은 또 일부주민들의 이주에 관련된 중제안을 내놓고 국방부가 주민들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한다. 임미영 참가하다

☞ 쌍용차지부가 5천여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정리하고 반대 결의대회를 열다. 쌍용자동차가 회사의 2646명 정리하고 노동부 신고를 하루 앞둔 가운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통해 전면전을 선포한다. 이날 결의대회는 2시간 부분파업을 한 평택공장 조합원뿐 아니라 창원엔진공장 조합원, 정비 조합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과 가족 등 5000여명이 함께 하다.

☞ 광주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앞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광주전 남연합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단체들은 '범민련 남측본부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발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연행자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참가자들은 범민련 광주전 남연합 홍번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지난해 사노련과 실천연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쫓돌에 색깔론을 덧씌우기 위해 기획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모든 연행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08

☞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유한우판사) 심리로 이른바 전여옥 의원 폭행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린다. 법정은 전여옥 의원 지지자들과 민가협 회원 등 100여 명의 방청객으로 가득 찬 가운데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이 모두 전여옥의 원에 대한 폭행 부분에서 엇갈리고 불합리한 진술을 하다 변호사 측이 전여옥의 원에게 선처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거부하다. 모성용 부회장이 방청하다.

☞ 이북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광명성2호"가 자기 궤도에 진입하여 정상가동을 시작한 지 첫 한 달이 지났다"면서 지금도 정상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렸다고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하다. 담화는 "이미 공개된 470MHz로 지구에 전송하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 선율과 위성자료에 대한 관측을 통하여 그리고 지상에 전개된 궤도추적 탐지기를 비롯한 측정수단들에 의하여 우리의 위성이 정확히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위성에서 보내오는 각종 측정자료들을 수신분석하였으며 지상관제소들에서 보내는 조종구령에 따라 위성의 동작상태를 변화시키고 지상의 여러 지역들에 전개되어있는 중계통신소들에서 위성을 통한 중계통신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다.

☞ 이북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4.5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는 4.13 안보리 의장성명을 주도한 오바마 미 행정부에 대해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힘으로 압살하려고 광분하였던 이전 행정부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고 하다. 또 "현(미) 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 동향은 당발에만 그치지 않는다"면서 안보리가 4.24 북한의 3개 기업을 제재목록에 포함시킨 것과 지난 3월 북한이 강력한 반대사를 표명했음에도 한미연합군사연습인 '2009 키리졸브/독수리'를 밀어붙인 사실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대답은 "우리는 이미 밝힌 대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고 하다. "우리가 최근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은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결코 그 누구의 주의를 끌어 대화나 해보자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 보도하다.

☞ 도렴동 외교통상부 앞에서 스티븐 보스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을 앞두고 평통사 주최로 미국 정부에 대북 제재 철회와 북미 간 직접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북미관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압력과 제재 기도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평통사는 1인시위에 들어간다

☞ 안산시단원 경찰서 앞에서 안산진보연대 주최로 '조국통일 범국민연합 남측본부중앙과 지역본부 압수수색 및 강제연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대적 공안탄압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다. 안산진보연대 이종범 집행위원장 사회로 통일마당손주열 대표의 상황보고,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정연철위원장, 민주당 상록갑지역위원회 전준호 정책위원장 등 규탄발언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범민련 탄압은 6.15, 10.4 선언을 부정하며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통일운동 탄압'이라며 연행자 즉각 석방과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다.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제 연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부당연행, 압수수색의 원상복구를 촉구하다.

09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범민련 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준)주최로 '범민련 탄압 규탄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또 지난 7일 체포돼 국정원에서 구속조사를 받고 있는 이규재 의장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이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장이 아닌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과 기소 이전에 수사단계에 있는 이들에게 수감번호까지 부여되어 있어 유치장보다 일반적으로 면회가 제한되는 등 인권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법리적 탄압일 뿐 아니라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하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최고위원 이영 민가협상임의장 권오창 실천연대 상임대표 평등시민총체공동대표 등 규탄발언과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기자회견을 낭독하고 범민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범민련 탄압 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무엇보다 피의자들이 정상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현재의 부당하고 불편한 구금상태를 우선 무조건 해제해 주셔야 한다"며 법원에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이경원 사무처장의 아들 강(10)군은 자신이 직접 써 온 편 하기도 하다. 모성용 김호현 권오현 함께 하다.

낙성대만남의 집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안병길운영위원이 준비한 영양보신탕으로 조출한 파티 있었습니다. 또 이날은 민족21지의 서유상 기사가 권오현 명예회장님을 취재하면서 선생님의 투쟁으로 일관된 삶을 조명하고 함께 하자는 다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럿 선생님들과 안병길 김익 모성용 김호현 임미영 권오현 등 함께 했습니다.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얼마전 남조선 보수 우익단체들의 주관하에 워싱턴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월남 도주한 30여명의 인간들과 함께 처음으로 북 인권대사라는 자까지 보내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벌였다"며 "이명박 패당의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을 우리에게 대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면서 이를 준열히 단죄 규탄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담화는 특히 용산 참사에 대해 "민주주의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각 계층 인민들의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불법 폭력으로 몰아대고 파쇼폭압 칼부림을 들이대고 있다"며 "침지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빼앗긴 철거민들이 이에 항거하다가 참혹하게 불에 타죽는 몸서리치는 참사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남한의 인권문제를 적시했다. "인민들의 존엄과 자주적,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참혹하게 짓밟으며 남조선을 세계 최대의 인권무덤으로 만든 자들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뻔뻔스럽고 가소로운 망동이 아닐 수 없다"는 것. 담화는 "인권은 곧 주권이며 민족의 존엄과 생존권에 관한 문제"라며 "이명박 패당이 우리를 공공연히 중상

모독하고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나선 조건에서 북남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고 주장하다.

10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는 남측본부와 통일운동 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주요인사 체포와 관련 성명을 내어 '남조선에서 공동선언을 이행하려는 모든 활동을 '이적'으로 몰아 탄압하고 통일에국세력을 완전히 숙청해 버리려는 이명박패당의 전면적인 탄압책동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갔다'며 '이번 탄압만행은 민족의 탄압만행과 북남공동선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대결을 격화시키는 용납 못할 반통일적 반민주적 파쇼폭거로 낙인하면서 이를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10

양심수후원회 회원이며 몸서리감시용 회원이신 박근직 김봉래님의 큰 아드남인 박세형군이 신부 황현화양을 맞아 양가 부모님과 친지들의 축하 속에 화촉을 밝혔습니다. 두분께서 한가정이루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1

이북 <로동신문>은 논설에서 범민련 남측본부를 압수수색과 체포 등 탄압과 관련 '광란적인 압수수색체포소동을 벌여놓은 것은 6.15 이후 있어본 적이 없는 엄중한 사태'라며 '이는 통일에국세력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라고 비난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논설은 이어 '전면적인 이 반통일 탄압공세를 그대로 몰라한다면 남조선에서 6.15 지지세력, 진보적인 통일운동단체들도 모조리 초토화되고 남북관계는 더욱 멀어질 것이며 남조선에서는 민주의 통로대 실용독재의 난투장으로 전락될 것'이라고 규탄하다.

11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정어머니를 모성용부회장이 면회하다. 여전히 힘든 것을 내색하지 않은 채 바깥의 동향에 늘 함께 하는 맘으로 안에서 아주 단단하게 잘 싸우고 있다고 하시다. 머지않아 석방되시리라 믿습나다.

12

용산철거대책위원회는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진실은폐 검찰 규탄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검찰에 끌려다니지 말고 검찰이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거나 압수영장을 발부하라"고 촉구하다. 이에 따라서 사회 각계 인사들도 배운심유가협회장을 시작으로 "검찰이 진실을 은폐하고 편파, 왜곡 수사를 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2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회위원장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철거민 6명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 두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다. 철거민측 변호인단이 밝힌 고소요지는 '직무유기'와 '증거 은닉'이다 이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불복하고 수사기록 1만여 페이지 중 3천여 페이지를 철거민 쪽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철거민측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이 되기 어렵다"며 변론을 포기한 상태다. 철거민들은 또 "검찰이 수사기록을 피고 인측에 공개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다.

- 종로구 기독교회관 2층에서 80여 개에 달하는 시민사회단체 성원 10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은 '범민련 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범민련 공대위)의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지중 진보연대사무처장 사회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에 이어 범민련탄압보고와 '타는목마름으로 탄 범민련관련 영상상영이 있었고 이영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황수영 민주노동총자주통일위원장 등 규탄발언과 김한성 교수노조위원장의 범민련이적규정에 대한 법률적입장 등을 발표하다. 이어 범민련남측본부 비상대책위 김세창 조직위원장이 비상대책위 공식입장 발표 공대위(준)의 발족취지와 향후일정 공대위 상임공동대표 인선발표가 있었음. 마지막으로 이강실 범민련 공대위상임공동대표의 발족 선언문을 낭독으로 선언문을 채택하다. 이날 발족식에는 범민련과 지방연합으로 이뤄진 6.15사수 범민련 비상대책위원회회를 비롯 한국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총 79개의 정당, 시민사회단체들과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평화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의 등 종교단체들도 '범민련 지키기'에 동참하다. 최성희 글로벌 네트워크 자원위원은 국제사회와 연대의 움직임을 밝히다. 공대위 상임공동대표단은 총 11명으로, 권오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한성 교수노조위원장, 노수희 범민련 비대위원장,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문대골 목사, 오세철 사노련 대표,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영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임성규 민주노동당 위원장, 최병모변호사, 한도숙 전농 의장(가나다순)이 맡았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모성용 김호현 임미영 권오현이 함께 하다.

- 서울대학교 봄철 대동절행사에 맞춰 민가협어머니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석방기금 마련을 위한 서울대장터'를 열었다. 김호현 모성용 임미영 소수영 김경중 회원 등이 장터에 둘러 어머니들을 격려 위로하다. 이어서 유가협 장터도 둘러 격려하다.

13 -----

-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쌍용자동차 김을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부지부장, 김봉민 쌍용자동차 정비지회 부지회장, 서맹섭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3명이 쌍용차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굴뚝농성에 들어가다. 쌍용자동차부는 임금노동자에게 정리해고는 살인일 수 밖에 없다며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인내해 왔으나 돌아온 것은 2405명에 대한 정리해고라며 노조가 함께 살자는 정상화 방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으나 이러한 주장과 요구는 사회적으로 묵살되고, 해고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밝히다.

- 서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희오토 비정규직지회장 이백운 박태수님을 면회다녀오다. 이백운 박태수님은 동희오토의 대량해고에 맞선 규탄집회관련하여 구속되었음 청년의 기개로 자본에 맞선 투쟁 일선에 있는 두 동지는 애초에 소속에서 약속한 장소이동집결이 기소전이라 불가하다며 약속을 깨는 바람에 일반면회로 대처할 수 밖에 없었음 변외성 회원이광렬구노회 사무국장 임미영 함께 하다.

14 -----

- 경남경찰청 보안2계는 인터넷 정치포탈 '서프라이즈' 등에서 '개굴이네집'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려온 양현구(46)씨를 가택수색하고 체포하다. 부인 김점숙씨에 따르면 "화요일 오전 7시 조금 넘어 남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경남지방경찰청 보안계에서 나왔다며 78명이 가택수색을 시작했고 1시간 정도 수색한 뒤 보안계로 이송했다"고 하다. 이들은 노트북에 들어있던 컴팩 디스크(CD)와 하드 디스크, 책 7권 등을 압수해 갔으며, 양현구 씨를 창원 소재 보안2계로 이송했다는 것. 양현구씨는『개굴이네 집』이라는 시집을 출간한 바 있으며, 경찰은 양씨가북한 자료를 인용해 인터넷에 게시한 글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와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상 위반했다고 밝히다.

-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 KT앞에서 평통사,범남본,양심수후원회 등 9개단체 공동으로 '116차 반미연대집회'를 열다.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장이 오바마정부는 대북적대정책 철회하고 북미직접대화에 나서라고 정치연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규탄하는 상징의식, 김덕엽 다함께 활동가의 아프칸 침략전쟁 동참반대 정치발언, 오미정평통사 홍보팀장의 미군가족 임대주택 임대보증강요규탄발언, 마지막으로 인천대공대학생이 오바마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낭독하다.

- 미의회산하 의회조사국(CRS)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아프카니스탄 포스트 탈 탈레반 시대의 통치체제 안보 및 미국의 정책 이란 보고서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2011년까지 아프카니스탄군(ANA)을 13만 4000명으로 증원 육성할 계획인 가운데 이에 필요한 20억달러비용 일부를<한국>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되다.

- 이북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해당기관의 기소에 따라 6월 4일 미국기자들을 재판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 경찰은 서초구 검찰청 앞에서 '용산참사' 수사기록 3천 쪽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해산하는 참가자들 7명을 연행하다. 심지어 구속된 용산철거민들이 변호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도 목이 졸린 채 강제연행되기도 하다. 경찰은 강제연행에 항의하는 참가자들과 연행 이유를 묻는 용산범대위 소속회원들도 연이어 연행하고 인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는 만행을 저지르다. 경찰은 기자회견을 방해하며 무산시키려 100여 명이 넘는 병력으로 이 일대를 에워싸고, 참가자들은 경찰의 포위속에서 기자회견

전을 진행한다. 이상범 씨의 부인 전재숙 씨도 10여 분 동안 바다에 쓰러져 오염하기도 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 공동대표 등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한다.

15

이북의 개성공단관리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에 적용해온 관련법규와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하고 남측이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한다. 통지문은 개성공업지구의 특혜조치들은 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인 ‘우리민족끼리’의 리념에 기초하여 남측에 부여했었다며 현남측 당국은 북남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의 리념을 부정하고 극단적인 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음으로써 개성공업지구의 기초를 완전히 허물어졌다’-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의 계약개정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기하고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남측이 실무접촉을 지연시키고 20일이 넘게 의제 밖의 문제를 가지고 반공화국소동을 벌이고 우리가 재차 제기한 13일 접촉에 끝내 응하지 않아 부득불 이미 예고한 대로 협상을 통해 논의하려던 입장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며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 단언을 엄숙히 통지한다. ‘고 하다. ①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그동안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별혜적으로 적용하였던 토지임대값과 토지사용료, 노임, 각종세금 등 관련법규들과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한다’며 ②“우리는 변화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라고하다’ 통지문 ‘은 이어’ 우리의 이러한조치는 남측당국이 빚은 것이고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언제까지나 호의를 베풀 수 없다’면서 615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하다.

반도체 노동자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과 삼성백혈병충남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평택자사와 천안자사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을 즉각 산업재해로 인정하라고 촉구한다. 삼성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 황유미, 이숙영, 황민웅씨와 삼성 반도체 온양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얻은 김옥이, 박지연씨의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자문의 협의회가 열렸음. 참가자들은 △작업환경상 백혈병 유발원인의 존재 가능성을 추정할만한 근거가 충분하고 △근무기간 중 노출된 양이 백혈병을 일으킬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업무상 원인보다 더 유력한 개인적 백혈병 위험요인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이 명백한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산재 판정 여부를 유가족과 피해 노동자에게 개별 통보할 것이라고 밝히다. 임미영 함께 하다.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이정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무건리훈련장 확장과 주민들의 생존권해결책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다. 이 자리에서는 국방부가 토론회 불참 의사를 통보해옴에 따라 무건리 훈련장 확장이 국방부가 밝힌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고 있어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다. 김용환 성공회대 교수 주병준 주민대책위원장 김종일 무건리공대위상임공동집행위원장 등은 발제문에서 국방부의 주장대로 객관적인 공동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주민 안전 문제가 확인될 경우주민들의 이주단지를 호련리 내 안전구역으로 마련해 줄 것과 또 무건리 훈련장 확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국방부에 적극적인 대화를, 국회에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다. 권오현 함께 하다.

용산 철도 웨딩홀에서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공동주최로 ‘2009 민족민주 스승의 날’ 행사가 열린다. 강기갑 민주노동당대표 오종렬 한국진보연대상임고문 노수희 범민련서울본부의장 등의 인사말에 이어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의장의 변호인을 통한 옥중 메시지를 전하다. 또 민중가수 최망새가 선생님들께 노래공연으로 위로하다. 재야 원로인사들이 권오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낭독한 선언을 통해 ‘2009 민족민주원로 선언’을 발표하다.

로버트 케이츠 미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상원군사위원회에서 미사일 방어(MD) 3단계의 중간단계인 미드코스(mid cours)방어계획과 관련 북미사일에 대비해 지상배치요격미사일 (Ground Based Interceptors =GBI) 30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밝히다. 케이츠 장관은 또한 대기권을 진입했던 적미사일을 최종단계에서 격추한다는 고고도 방어체계 THIGAD)계획과 관련 미사일방어능력을 갖춘 6기의 이지스함을 새로 증강할 계획임을 밝히다.

16

대전광역시 시청사 앞에서 1만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박종태 열사 투쟁 승리, 5.18정신계승,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노동자 민중대회’가 열린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대회에서는 대한통운 해직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광주 태생인 박종태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의 영정 앞에 모인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 이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도 결의발언을 하다. 고인의 부인 하수진씨는 ‘남편은 여기 계신 분들의 동지로 남기 위해서 떠나갔다. 동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여 장내를 숙연하게 하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같은 장소에서 열사투쟁 승리 화물연대 시수를 위한 총파업 결의 조합원 총회를 열고 총파업을 선포하다.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치고 죽리4거리, 대전 중앙병원, 대한통운까지 거리행진을 펼치는 동안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으로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마치 전장을 방불케 하다. 자정이 넘어 연행자 수는 5백여 명에 이른다.

구노회 이광렬사무국장 변외성 김성환회원 임미영 등 함께 한다.

- 광주 금남로에서 '옛 도청 원형보존과 5월 정신 계승을 위한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200여 명의 시민들은 4차선 도로를 통제하고 쌓아올린 무대 앞에 "도청을 보존하자" '옛 도청 건물이 없어지면 5.18을 가슴 속에 지우는 것'이라며 철거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광주의 대표적인 5.18단체들, 청년단체, 노동조합들이 도청 건물을 부수지 말라고 요구해도 정부는 듣지 않는다"면서 "문광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도청 강제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이날 행사에는 각 지역단체들이 준비한 문예공연이 진행되고 자유발언으로 도청건물 철거에 반대에 함께 연대한다.

17 -----

- 광주 전남대학교 교정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와 제 시민사회 단체와 대학생 지역 누리꾼 등 1천여 명과 함께 '광주항쟁 정신계승! 공안탄압분쇄! 이명박 정권퇴진! 5.18 자주통일대행진을 시작, 광주역-롯데백화점-금남로까지 4km 가량의 가두행진을 펼친다. 6.15사수 범민련 비상대책위원회 노수희 위원장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은 발대식에서 "5월에서 통일로 가는 격동적인 역사를 만들어 내자"면서 "광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우리의 대행진으로 반 이명박 촛불항쟁이 거세질 것"이라고 밝힌다. 행진에서는 최선두에는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풍물패가 앞장을 서고 "남북관계 후퇴시키는 범민련 탄압 중단하라", "오월에서 통일로" 등의 수 십여 기의 만장과 행진대열이 뒤따른다. 참가자들은 단일기를 높이 휘날리는 가운데 1시간 10여 분간 행진을 벌인 후 금남로에서 열린 국민대회에 합류한다. 김혜순 박운경 이용준 모성용 김호현 임미영 정형근 김성환 권오현 함께한다.

- 광주 금남로 옛 도청 앞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MB악법저지 구 도청 강제철거 저지, 박종태 열사 정신계승 5.18민중항쟁 29주년 국민대회를 열다. 범민련자주통일행진단을 비롯 노동자, 농민, 학생, 청년 등 각 부문 3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도 대회사에 이어 반명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주병준 무건리훈련장확장저지주민대책위원장 이태형 범민련남측본부대외협력팀장이 연대의 발언을 한다. 이어 대학생들이 80년 5월 시민군과 관군의 대치 모습을 재연하여 그날을 상기시키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남 산청 간디학교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최보경 선생의 부당한 수사를 탄원하는 공연을 펼쳐보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날 결성된 한국청년단체연합(준)박희진 공동준비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 광주교육대학교에서 400여 명의 청년단체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새로운 청년운동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식이 개최되다. 발족식에는 전국 45개 청년단체들이 참

가했고, 현재 새로운 연합체에 56개 단체가 참가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10여 단체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진보적 청년운동의 대표체를 구성하는 데 뜻을 함께했으며, 청년 계층 문제에 앞장서고 시대성과 대중성을 겸비해 청년운동의 새 비전을 불어넣어줄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다. 박희진윤희숙 전 한청 부의장과 조종완 6.15청학연대 청년위원장이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아 청년운동을 이끌게 됐다.

- 5.18광주민중항쟁 28주년을 맞아 행사준비위원회 주최로 광주광역시 구전남도청에서 5.18민중항쟁 제 28주년추모제가 열린다. 5.18희생자들이 묻힌 망월동 묘역이 아닌 구도청에서 추모제를 연 것은 '역사의 현장'을 철거하겠다는 일부단체와 당국에 항의하여 이 현장을 지켜내기 위해서였음. 문영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부회장의 인사말, 안성례 5.18행사준비위원회위원장의 추모사 등이 있었음. 유족들은 금남로 네거리에서부터 행사장까지 '옛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희생자 위패상여행진'을 한다

18 -----

- 이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외교통상부는 반민족적 집단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했다. '담화'에서는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소개하면서 '이 추악한 반공화국대결소동에는 <외교통상부>가 있다'며 미일상선과 결탁하여 조선반도의 비핵화정을 완전히 파탄시킨 것, 국제무대에까지 나가 북남공동선언을 반대하는 소동을 피우고 반공화국<인권>모략 광대에 악랄하게 매달렸으며 극히 위험천만한<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전면참가를 집요하고 고집하고 있는 것도 <외교통상부>라고 한다. 이어 '지어(심지어) 주제넘게 개성공업지구 문제까지 감찰하면서 우리를 모략하는 행위를 일삼다가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자의 문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기하겠다는 망설도 서슴지 않고 있는 패당이 바로 <외통부>라고 비난한다.

- 인사동 한 음식점에서 각계 사회원로 30여명이 함께하여 '학산 윤윤기(승원) 선생 59주기 추모임이 있었음. 학산 선생은 1900년 7월 전남 보성에서 한학자 윤병남 선생의 장남으로 태어나 15세까지 한학수업을 하고 1918년 김형직 선생이 조직한 조선국민회보성지회 성원으로 가입 항일활동을 하였으며, 1925년 늦게 전남공립사범학교를 졸업했음. 이후 교육자로서 조선어교육 등 육영사업을 하면서 1935년엔 조국광복회에 가입하여 반일 독립운동을 했고 1940년 보성군에 민족교육전당인 <양정원>을 개원하여 운영함. 1939년 셋째아들 윤성식 출생 1942년 김일성항일유격대 방문격려 상해 임시정부에 거액의 독립군자금제공. 1944년 만국동맹가입. 1945년 조국해방 뒤 몽양 여운형선생과 건국국사논의. 친일민족반역자 심의위원을 역임 1949년 백범선생 서거 후 낙향하여 교육사업. 1950년 이승만 정권에 의해 학살당하셨음. 추모모임에선 여러 분들의 추모말씀이 있

있고 고인의 뜻을 기리고 이어가 자주통일에 노력할 것을 다지다. 유족으로 동생 윤-- 윤종순님들이 함께 하였음.

영등포 대영빌딩 민주노총에서 지난 16일 대전에서 진행된 노동자 대회에서 486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경찰청장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찰이 평화행진을 가로막고 집회참가자를 자극한 뒤, 이어진 충돌을 발미로 '함정연행'을 했다"며 이는 공정한 경찰력 집행이 아닌, 화풀이식 집단연행이었다고 비난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사건을 비롯해 화물노동자에 대한 문제 등 현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5월 말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을 시작으로, 애초 6월 말로 예정됐던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을 포함한총력투쟁을 보다 앞당길수 있다고 경고하다.

영등포 소재 새로 이전한 전교조 사무실 제1회의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제2의 참교육 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이제 새로운 교육철학에 입각해 교실과 학교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학교교육 혁신운동을 전개하는 제2의 참교육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아름다운 동행 20년,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라는 주제로 기념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경쟁만능 이명박교육정책 전면 전환 촉구 2009 교사 선언'을 진행하고 있고, 오는 23일 오후 4시 여의도 문화마당에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MB교육정책 심판 학생·학부모·교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광화문 미 대사관 인근 KT 앞에서 다함께, 민주노동당, 한국진보연대 등 20여개 정당·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아프가니스탄 학살 중단하고 점령 종식 재파병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의장 김종일 '평통사'사무차장 등의 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을 통해 "폐권을 위해 벌이는 추악한 전쟁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아프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그렇기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한 사회를 철저히 파괴하는 이 전쟁에 또다시 군대를 보낼 수 없다"고 밝히다.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준)주최로 '집회 시위원천봉쇄 불법시위 단속규정 21세기판 긴급조치 블랙리스트 부활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한 가운데 경찰의 '좌파단체, 상습시위꾼 2500명 검거 방침'을 규탄하다. 경찰의 '좌파단체, 상습시위꾼 2500명 검거'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는 이날도 경찰은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해 참가자들보다 2배 이상이 많은 경찰 병력에 겹겹이 에워싸인 채 힘겹게 진행되고 경찰병력에 밀려, 카메라기자들과 기자회견 참가자들 간 거리는 1미터 남짓이었다. 경찰은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구호를 외치고 정치 적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간주, 곧

장 해산명령 경고를 하다 참가자들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경찰의 집시법 적용을 규탄하다.

양심수후원회 차원에서 대전지역의 양심수면회 박종태열사 빈소 조문 민법식선생님 구순축하연 등 하루 일정을 보내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대법원확정 판결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인 장민호 최기영님을 면회하다 양심수후원회 임미영사무국장과 권오한명예회장은 두 분을 따로 접견 신청하여 면회를 하여 모두 몸도 마음도 건강한 모습이었음 장민호님은 국가보안법관련 양심수 가운데 가장 장기형을 선고 받고 있으며(7년) 최기영님은 3년6개월을 선고 받았음. 회원들의 염려를 모아 안부 전해주다 면회를 마치고 대전중앙병원 장례예식장을 찾아 화물연대 광주지부장 박종태열사 빈소를 문상하고 부인 하수잔님을 위로하다. 이어 충남대 불철대동체에 맞춰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수석방 기금미련을 위한 대전·충남 양심수후원회 후원주점'에 들려 격려하다. 이날 가장 의미있는 일은 민법식 선생님 구순 축하마당에 함께 했음. 민법식 선생님은 1920년 충북 청원군에서 태어나시어 20살 때 함경북도 성진사(오늘의 김책시)로 온 가족이 모두 이사하시어 조국 해방이 될 때까지 철도 기관사로 일하셨고 해방을 맞아 노동당에 가입 청진철도관리지도원으로 계시다가 1959년 통일사업을 위해 남쪽으로 오셨다가 체포되어 23년 옥고를 치루시고 1981년 8.15특사로 출소하시어 대전지역에서 살아오셨음. 북녘 고향엔 부인 허분여님과 병하·옥란·병갑·병선 네 자녀를 두고 계심. 마침 5.19일이 선생님의 탄생 90년을 맞아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에서 후원주점 마당에서 구순잔치상을 차리고 대전지역 비전향장기수 2차송환희망자들이신 이찬곤 최일현 허찬형 선생님과 홍성순전 후원회장 그리고 대전지역 사회전체 대표들과 후원회원 등 50여명이 함께 한 가운데 민법식 선생님 구순축하행사를 진행하였음 김병곤 후원회원진행으로 대전충남양심수후원회 회장 권오한민기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등 축하말씀과 잔을 들어 만수무강을 빌어드려다. 2차송환을 기다리시는 선생님은 90노인이시지만 언제나 정정하시고 자주통일세상의 염원을 간직하고 계심 선생님 더욱 건강하시고 빠른 시일내로 신념의 고향으로 돌아가시기를 빕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시위와 관련된 관계장관회의에서 '도심에서의 대규모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침을 결정하다.법무부와 경찰청은 회의보고를 통해 도심 대규모집회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며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한 경우 체증을 철저히 하여 사후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유한우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전여옥의원폭행사건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정이 부산 민가협 대표와 조순덕 민가협전지장에 대해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1년 6월형을 구형하다. 검찰의 구형에 대

해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상해 혐의는 공동상해에 의한 폭행상해가 아니라 단순 우발적상해가 동시에 나타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부산 동의대 사건 등은 정치적 이해 조정의 실패한 사례로 전 의원이 이에 대해 폄하하고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해 왔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호소하다. 모성용 김호현 권오현 방청하다.

국정원과 보안수사대의 범민련과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불법체포 등 탄압 13일째를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대위 차원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국정원 앞에서 전국 10여 곳에서 동시다발로 '범민련 탄압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하다. 내국동 국정원 앞에서는 '범민련 공대위상임공동대표인 권오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과 615 시수 범민련비대위 노수희 의장이 1인 시위를 시작하다. 권오현 대표는 1995년 (범민련에 대한) 대탄압 이후 합법적, 공개적, 평화적으로 모든 활동을 펼쳐온 범민련이 합법적으로 방북하고 행사에 참가한 것이라며 "15년이나 지난 이제 세상에 탄압을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복대결정책에 따른 민간 통일운동 탄압"이라며 범민련활동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른 3자연대 통일운동"이라고 강조하다.

유명환외교통상부 장관은 강원대학교에서 있는 '세계화와 한국외교'란 주제 강연에서 한미동맹에 대해 '지난 50여년간 평화·안정·번영의 기회를 제공해준 전략적 기반이었다면서 '앞으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기에는 있어서는 한미동맹이 굳건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하다. 또한 '정부는 한미동맹을 군사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강화를 도모하는 <21세기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며 한국외교도 앞으로 '미국과의 21세기 전략동맹,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 중국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맺는 등 주변 4개국과 전략적 협력망을 구축했다'고 자평하다 바로 동쪽을 적으로, 외세와 공조하는 사대매국외교이다

용산남일당빌딩 앞에서 용산범대위는 경찰의 용산 참사 현장을 방문한 대학생들을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용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사회자 홍석만 용산범대위 대변인을 지목해 "불법집회를 선동운운하며 기자회견 내내 경고방송을 이어가다. 수전 대학생공동행동 단장 고 양희성 열사의 부인 김영덕 씨등의 경찰규탄발언에 이어 기자회견문에서는 고인을 추모하려던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전철연 회원을 성추행, 유기죽을 폭행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어 공간통치에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다.

소식지211호 최종교정본을 창미디어에 넘기다 권오현 모

성용 임미영

중로 탑골공원 앞에서 범민련탄압규탄을 내용으로 하는 민가협 755회 목요집회를 열다.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과 원진옥 범남본사무차장이 범민련과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공안탄압규탄과 국가보안법폐지촉구발언을 했고 임기란 민가협전상임의장이 인권침해규탄발언이 있었음

615남측위 광주.전남본부 광전진보연대 범민련 광전연합 광전평통사 등 15개 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8일 첫모임을 가진 이후 신공안정국분쇄, 민주주위수호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제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준)를 구성하고 21일 국정원 광주지부 앞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광주지부.전남연합 박용식 사무총장 국정원출석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 파탄내고 공안정국 조성으로 국민탄압하는 이명박정권을 규탄하다.

용인 죽전의 단국대학교 교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후원회 지원을 위한 단대법사학회 주점에 양심수후원회원과 선생님이 함께 하여 격려하고 연대의 뜻을 표하다. 박희성 류종인선생님과 김호현 모성용 권오현 김혜순 김길자모지희 안병길 용인화원 등 함께 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아람회 사건 재심판결에서 1981년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았던 박해전(54) 씨 등 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다. '아람회 사건'은 충남 금산중학교 동창생들이 박씨 등이 1981년 5월 17일 전직 군 장교인 김난수의 딸 아람의 백일잔치에서 반국가 단체 '아람회'(수사기관이 정한 명칭)를 결성해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징역 1년 6개월~10년 등 중형을 선고 받고 1988년 특별사면됐다. 재판부는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1979년 말부터 정권의 안정을 기할 목적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아람회 사건'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피고인들에게 고문, 폭행, 협박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구성원들을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밝히다. 재판부는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던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다"며, 계엄반공.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서면소 판결했다. 박해전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5공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단죄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살리는 정의의 심판을 한 재심 재판부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며 "우리 사회가 반인권적 과거사를 청산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국민주권시대로 전진하도록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5공의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사과 및 피해자 원상회복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특별법 제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시킨 연장 △광주 전남도청 별관 원형보존 △국가보안법 폐지 및 615, 104 선언 이행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23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통일운동단체 성원 3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범민련 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공안탄압 분쇄! 범민련 탄압 규탄! 민주인권수호대회'가 열렸다. 권오현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김세창 범민련 남측본부 조직위원장 최미진 다함께 운영위원의 규탄발언과 김종일 평통사사무처장 의 결의발언장독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사회진보와 자주, 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4천만 민중의 단결을 강력히 추동하고, 하늘을 찌를듯한 민중의 원성을 폭발시켜 이명박 정권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다. 범민련 북측본부도 "범민련 남측본부가 분열주의세력의 가혹한 탄압책동에 추호의 흔들림없이 각 계층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조직을 사수하며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정의의 애국운동을 보다 과감하게 전개하러는 기대를 표명한다"고 연대사를 보내오다. 김래곤 소수영 임미영 모성용 김호현 권오현 등 여러 회원 함께하다.

여의도공원에서 전교조조합원과 학부모 학생단체 등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교조직원 노동조합창립 20주년 기념대회'를 열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노동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87년 교육악법 철폐투쟁에서 시작 참교육실천을 위해 1989.5.22일 연세대에서 결성했음. 기념식에서는 ▲강제보충수업 중단 ▲자율형사립고 설립폐지 ▲무상교육과 대학등록금 상한제 실시 ▲학교서열화폐지 ▲교수노조 합법화 및 해직교원 복직 등을 촉구하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날 오전 8시30분경 서거한 것으로 경남경찰청이 확인하다(특보). 노무현전대통령의 측근인 문재인 전청와대비서실장은 11시 브리핑에서 '노대통령이 오전 5시 45분 집에서 나와 봉화산에서 등산하던 중 오전 6시40분께 바위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인다-당시 경호원 한 명이 수행하고 있었다. -대통령께서는 가족들 앞으로 짧은 유서를 남겼다고 밝히다. 백승환 부산대 병원장은 '오전 8시 13분 대통령은 인공호흡을 받으며 본 병원 응급센터로 이송해왔으며 도착 당시 의식이 없었으며 자가호흡이 없었다. 심전도 모니터상 박동이 없었으며 9시30분에 심폐소생술은 중단되었다. 두부외상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진단된다고 밝히다(녹록골절 척추 우측발목 골반 등 다발성골절). 한편 노무현전대통령의 시신은 오후 5시30분께 양산 부산대병원 장례식장을 떠나 봉하마을 회관에 안치되다 조문객이 줄을 이었고(민주당 민주노동당대표 등) 이명박조화는 박살나고 이회창대표 달걀세레 한승수총리 조문 못하다. 또한 노무현전대통령을 추모하는 시민들이 덕수궁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차렸으나 경찰이 40분만에 철거하다. 그러나 조문객은 더욱 늘어나 다시 분향소설치하고 경찰은 1호선 시청역 대한문 방향출구 123번을 완전 봉쇄하고 서울광장은 경찰버스로 성을 쌓다. 시민분향소에 이날 하루 4만명이 다녀가다.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주최로 '박

종태 열사정신 계승, 교섭추구, 노동탄압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화물·건설 노동자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다. 최종진 서울본부장화물연대 박종태 열사 부인 허수진씨는 "남편의 죽음에 대해 대한통운은 일간지 광고를 내 '아무런 관련 없는제3자다. 해고자를 위해 할 것 다 했다'고 거짓말과 협박을 일삼고있다"면서 "‘죽창’으로 남편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자들에 대해 장례식을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서울 시내에서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이날 하루 서울시내 곳곳에 62개 중대의병력을 배치했다.

24

6.15한마음통일산악회 6월 산행으로 관악산을 등반하다 모두 16명이 함께하여 낙성대능선 아카시아 숲길 샘물쉼터-사당능선-마당비위를 거쳐 예정된 장소에서 점심식사하고 평소와 같이 소개 시간 정세보고 등이 있었고 하산길은 사당능선-사당역으로 하다. 기사보심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노무현전대통령의 서거를 신속히 보도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공보도하다. <통신>은 이날자로 '전 남조선대통령 노무현이 5월 23일 오전에 사망하였다'며 '내외신문들은 그의 사망동기를 검찰의 압박수사에 의한 심리적 부담과 관련시켜 보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노무현대통령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이 밤새 이어졌고 이날은 새벽부터 긴 행렬이 이어지다 오전 9시30분께 해인사 선각주지스님 등 350명이 분향소를 찾아 불경을 외우며 추모제를 진행한다. 정부와 노전대통령장례추진위원회는 장례형식을 국민장으로 거행키로 하다. 이날 6시까지 14만여명이 조문하다. 한편 임시분향소가 마련된 덕수궁 대한문 앞에는 조문행렬이 끊없이 이어지다. 분향소있는 태평로 도로가를 경찰버스는 차벽을 쌓고 전경을 배치하다. 이날까지 조문객은 10만명이 넘었고 조문객이 추모글들이 지하철벽과 전경버스 등에 뺨뺨하게 붙여지다. 자발적인 시민모금과 물품지원이 이어지고 언론노조 민주노총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등도 물품지원에 함께 하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추모하는 분향소는 전국에 걸쳐 설치되고 불교쪽은 조계종차원에서 서울조계사를 비롯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수덕사 월정사 등 전국 25개 교구본사에 분향소를 설치하다.

25

후원회 소식211호를 회원963명에게 발송하고 양심수 84명에게 민족21 소식지211호 영치금 발송하다.

덕수궁앞 시민분향소 앞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준)주최로 '조문까지 가로막는 이명박정부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광장을 시민에게 열려라'고 촉구하다. 한도숙 전농의장 광정숙 민주노동당의원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공동대표 등 규탄발언과 정진후 전교조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 영등포구치소로 이정이 부산민가협전회장을 면회하다. 이 전회장은 노무현전대통령서거소식을 오늘 아침에야 알게 되어 크게 상심하여 면회조차 거부하겠다고 했으나 면회 온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접견장에 나오시다 매우 초췌한 모습이었으나 29일 선고공판에서 반드시 출소하실 것임을 위로하다. 이정이회장동생과 권오현 함께하다.

☞ 2000년 9월 2일 북녘으로 송환되신 이두균선생님 사모님께서 심장판막증으로 진단되어 혈관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한양대병원에 지난 22일 입원하시어 면회를 다녀오다. 수술은 28일에 하기로 했고 팔과 다리 등에서 찢줄을 뜯어내 심장에 막혀있는 혈관을 대체하는 수술이라고 하심 임방규 김영승 권오현 다녀오다.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노무현 전대통령서거에 애도의 뜻을 전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관영<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6시 '로무현 전대통령이 불상사로 서거하였다는 소식에 접하여 권량숙여사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김정일 주체 98(2009)5월 25일'이라는 조전을 보도했다고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 이북이 이날 지하핵실험을 했다고 공식 확인하다. 이북의 관영<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요구에 따라 공화국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주체 98(2009)5월 25일 또 한차례의 지하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통신>은 이번 핵시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완전하게 진행되었으며 시험결과 핵무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고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게 되었다며 '핵시험 성공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150일 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고 하다. 이어 '핵시험은 선군의 위력으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수호하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다.

☞ 봉하마을에 이른 새벽부터 조문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진보연대 원로들과 실무자들이 봉하마을 분향소를 찾아 합동조문하다. 조문단은 장례위원회측 안내로 조문을 마치고 김원기 전국회의장 등 관계자들과 상주역을 대신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인사를 나누다. 박중기 김금수 남상현 김영식 임방규 이강실 노수희 한재율 송계채 권낙기 박석운 권오현 등 함께 하다. 한편 덕수궁 대한문 앞 분향소를 둘러싸고 있던 경찰차량이 이날 정오에 철수하다. 이날 현재 전국의 조문객수는 100만이 넘어섰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제2차 핵시험 성공을 경축하는

☞ 평양시군중대회가 26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보도에 따르면 군중대회에서 최대북노동당 비서는 '이번 핵시험은 미제의 핵선제 공격위협과 제재압력책동이 더욱 심해지는 조건에서 공화국의 최고 이익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일대장거였다'고 하다. 통신'은 이날 군중대회에서 '조선인민군과학자, 노동계급 농업근로자 대표의 연설이 있었다'며 당과 군대 국가의 간부들과 당무력, 정권기관, 로동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꾼들 시안의 기간 기업소 일꾼들, 공로자들, 각계층 시민들이 참가하였다고 하다.

☞ '범민련탄압 규탄 국정원알 일인시위'에 모성용 임미영 함께하다.

☞ 2009 메이데이 촛불시위 관련하여 구속된 조규창 방병환님을 면회하다. 모성용 임미영

26

☞ 정부가 남북관계를 고려해 몇 차례 연기를 거듭해온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를 공식 발표하다. 전날 북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조치인 셈이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도렴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대량파괴무기(WMD)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확산방지구상(PSI) 원칙을 승인기로 했다"고 밝히다. 이에 따라, 남측의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북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 이북은 결성 54년째를 맞은 제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에 대해 "애국충정의 한길을 걸어왔다"고 평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하다. 북의 <조선중앙통신>은 25일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있는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은 결성(1955.5.25)된 때로부터 지난 54년간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를 창조하며 자기 수령,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을 위한 애국충정의 한길을 걸어왔다'고 평가하고 통신은 총련이 권위있고 힘있는 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 발전되었으며, 제일동포들의 민주주의 민족권리를 옹호하며 민족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애국의 대를 곳곳이 이어나갔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했으며 공화국의 대외적 권위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알렸다

☞ 북이 2차 핵실험을 한 25일에 이어 26일에도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오늘 오후 함경남도 함흥시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이 정보당국에 포착됐다"고 밝혔고 이 미사일은 사거리 130여km의 지대공과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보도했다.

☞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평통사 90차 평화군축 집회가 열리

다. 부천평통사 주정숙 대표의 사회로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의 현안연설과 오혜란 평화군축팀장 이주는 조직사업팀장(인천대학교 공대학생회)의 발언으로 진행된다. 무건리훈련장 확장 반대 주민 대책위원회 서경자 부위원장 투쟁보고 평통사 조승헌 평화군축팀부장의 국제군축동향 보고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서울평통사 남미영운영위원의 결의문을 낭독으로 집회를 마친다. 모성용임미영 함께 하다.

☞ 정부가 남북관계를 고려해 몇 차례 연기를 거듭해온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를 공식 발표하다. 전날 북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조치인 셈이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도렴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대량파괴무기(WMD)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확산방지구상(PSI) 원칙을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측의 PSI 전면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북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 이북은 결성 54년째를 맞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에 대해 “애국충정의 한길을 걸어왔다”고 평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한다. 북의 <조선중앙통신>은 25일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있는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은 결성(1955.5.25)된 때로부터 지난 54년간 주체형의 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를 창조하며 자기 수령,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을 위한애국충정의 한길을 걸어왔다”고 평가하고 통신은 총련이 권위있고 힘있는 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 발전되었으며,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 민족권리를 옹호하며 민족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애국의 대를 곳곳이 이어나갔으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했으며 공화국의 대외적 권위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알렸다

☞ 북이 2차 핵실험을 한 25일에 이어 26일에도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오늘 오후 함경남도 함흥시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이 정보당국에 포착됐다”고 밝혔고 이 미사일은 사거리 130여km의 지대공과 지대함 단거리미사일이라고 보도했다.

☞ 파주무건리 오현초등학교에서 ‘무건리 훈련장 확장저지를 위한 300회차 촛불집회’가 열린다. 주병준 주민대책위원장의 여는 말에 이어 무건리공대위 윤한택 상임대표 평택대추리 신종원 이장의 격려발언이 있었음. 격려발언이 끝나고 현장사진연구소에서 제작한 주민들의 투쟁영상이 상영되고 이어 인천공대 학생들의 울동으로 행사장의 분위기를 돋구다. 마지막으로 상징의식을 위한 대형 촛불 현수막이 등장하여 주민들과 참가자들은 이 현수막에 각자의 소망을 적어내다 모성용 나정옥 모세미 임미영 박희성선생님 함께 하다.

☞ 도렴동 외교통상부 앞에서 평통사 주최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며 북미 관계 진전을 휘방하게 될 백해무익한 PSI 전면 참여 선언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기자회견문에서 그 핵심 행동원칙이 ‘포격과 폭격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하는 행위인 ‘차단’이라며 북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PSI 전면 참여를 강행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일말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남북 대결과 대북 압박을 노골화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다. ‘다함께의 김택업 활동가사회진보연대 수열 사무처장 등의 규탄 발언이 있었음

☞ 용산-범대위는 덕수궁 대한문앞 인근에서 ‘용산참사 해결 촉구 정치검찰규탄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하고 공안탄압중단을 촉구하다. 참가자들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 이명박정부의 공안탄압때문이라며 용산참사 희생자들과 노무현대통령은 닮아있다고 주장하다. 용산철거민변호인단의 권영국변호사 배은심 유가협회장 노동전선의 조희주대표 등이 결의발언을 하다.

☞ 정동 서울미술관 앞 삼거리에서 4개 종단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추모위원회주최로 ‘노무현대통령서거추모제’를 열다. 수천명이 촛불을 밝힌 가운데 ‘술아술아 푸른 술아’를 합창하며 추모제가 시작되다. 처음 계획은 서울광장에서 열기로 되었지만 이날 행정안전부 장관의 최종불허와 경찰의 원천봉쇄로 장소를 옮겨 진행하다 고 노대통령의 영상과 육성이 울려 퍼지자 참가자들은 ‘광야에서’와 ‘이침이슬’을 함께 부르며 슬픔과 분노를 표출하다. 남윤인선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의장 주부 정미정씨 정진우목사 청화스님 등 추모사와 추모시를 낭송하다. -한편 시민분향소는 밤새 조문행렬이 이어지다.

☞ 남측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발표에 대해 북측은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대표 리찬복 상장)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북의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낮 12시 33분경 보도한 북측군부 성명은 남측의 PSI 전면 참여에 대해 “국제법은 물론 교전상 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 된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유린이며 명백한부정”이라고 규정하고 “이로써 미제와 이명박 역적패당은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상태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먼저 “우리 혁명무력은 이미 세상에 선포한대로 이명박역적패당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전면참여’를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평화적인 우리 선박들에 대한 단속, 검색행위를 포함하여 그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용납못할 침해로 낙인하고 즉시적이며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당면하여 조선 서해 우리 해상군사분계선 서북쪽 영해에 있는 남측 5개섬(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 침략군과

괴뢰해군함선 및 일반선박들의 안전항해를 담보할수 없게 될것이다"고 선언한다.

2 8

● 용산 국방부에서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한미연합사의 위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위치콘은 모두 5단계로 운용되며 평시에는 3단계를 유지한다. 이날 위치콘 한 단계 격상으로 감시자산 항공정찰 등의 정보수집자산, 분석요원 등을 증가 투입해 대북 감시태세가 더 강화된다. 위치콘 격상은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 이명박정권의 범민련 탄압으로 구속되신 이규재 범남본의 장님과 이경원 사무차장과 통일운동가 최은아님을 면회하고 영치금을 넣어드리다. 이날 서울구치소측에 국정원조사로 그동안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고 이후 수용자의 외부교통권 민원인접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민원업무제도개선을 통해 인권침해사태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공식 통지문을 받았음. 범민련활동가들과 모성용 임미영 함께 하다.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제21차 1차운영이 열리다. 우선 후원회 홈페이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익화원의 홈페이지관련 상황보고에 이어 지난 활동보고 및 재정보고가 있었음 안전으로는 시사교양강좌 실행관련 회원확보문제 후원회소식200호합본본 발행 만남의 집 건축관련 등을 논의하고 다음 운영일 날짜 정하고 회의를 마치다. 김호현 김지영 모성용 소수영 안병길 김명숙 장경옥 김동원 김길자 김혜순 임미영 참석하다.

●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가제단 집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미사를 올린다. 1500여 미사참가자들로 성당은 북도까지 가득 메웠고 성당 밖에까지 줄이어 섰음. 정신호신부님의 추도사, 몬시뇰 김병상사제단 고문의 강론 등이 있었음 추도사와 강론에서는 부당한 권력행사와 우리 모두가 '당신을 벼랑으로 내몰았습니다'며 고인을 추모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유린을 규탄하다.

● 이북의<노동신문>은 '천만부당한 이중기준정책은 끝장내야한다'는 제목기사에서 '미국의 이중기준 정책은 핵문제, 인권문제,테러문제 등 여러 국제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핵문제에서 미국의 이중기준 적용은 저들의동맹국의 핵무기개발과 생산을 묵인비호하고 지어는(심지어는) 지원까지 하면서 저들과 사상,제도를달리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핵문제를 걸고들며 압력과 제재소동을 벌이고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고 규탄하다. 이어 '미국은반제 자주적인 나라들의고무를 인권문제를 고안해내 내정간섭, 압력, 정부적복책 등을 합리화하는데 써먹고 있다'면서 '인민들에게 자주적권리와 참된 삶을 철저히 보장해주는 우리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꺼내드는 것은 명백히 이중기준의 극치'라고 규탄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의로운 민족해방투쟁을 벌이는 사

람들에게 테러분자 감투를 씌우는가하면 저들의 국가테러행위로 국제평화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광고하고 있다 며 꼬집다.

2 9

● 경복궁 앞뜰에서 3500여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노무현 전대통령 영결식이 엄수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장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현 정권의 한승수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일생을 '인권과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삶'이라고 평가하고 '고인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할 것이며, 화합과 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고 세계 속에 품격 있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다. 영결식의 분위기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의 종교의식이 치러진 다음 노 전 대통령 생전 얼굴이 영상에 비치다. 고인의 유서와 사진이 흐르고 마지막으로 '바보 대통령 당신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영상에 맺히면서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으며 노 전 대통령 대형 영장과 운구차 뒤로 들어온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두 남매는 비교적 깨끗한 모습을 보였다. 권 여사도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줄에 앉아 있으면서도 행사 내내 의연한 모습을 지켰다. 헌화가 진행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헌화를 위해 영장 앞으로 나오자 중앙 앞줄에 앉아 있던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사죄하라"라고 외치며 식장으로 뛰쳐나오기도 하다. 12시 20분 경 조총대원들이 조총 21발을 발사하면서 영결식이 마무리되고, 고인을 실은 운구차는 시민의 걸로 향했다. 유시민 전 의원을 비롯한 고인의 측근들은 땅바닥에 절을 하며 마지막 가는 길에 예를 표하다. 고인은 40만 인파가 몰려 있는 광화문과 서울 시청 인근에서 노제를 벌인 뒤 서울을 떠난다.

● 봉하마을에서 발인제를 마치고 출발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운구차량이 경복궁에 도착 영정이 입장하면서 경복궁 앞뜰에서 3500여 장의위원과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고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 주최로 노무현 전대통령 영결식이 엄수되다. 송지환이나운서 사회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의약력보고 장의위원회공동위원장인 한승수 장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승수 총리, 한명숙 전총리등 조사에 이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의 종교의식이 치러진 다음 노 전 대통령 생전 얼굴이 영상에 비치다. 고인의 유서와 사진이 흐르고 마지막으로 '바보 대통령 당신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귀가 영상에 맺히면서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으며 노 전 대통령 대형 영장과 운구차 뒤로 들어온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두 남매는 비교적 깨끗한 모습을 보였다. 권 여사도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줄에 앉아 있으면서도 행사 내내 의연한 모습을 지켰다. 헌화가 진행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헌화를 위해 영장 앞으로 나오자 중앙 앞줄에 앉아 있던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사죄하라"라고 외치며 식장으로 뛰쳐나오기도 하다. 12시 20분 경 조총대원들이 조총 21발을 발사하면서 영결식이 마무리되고, 서울광장에서의 노제를 지내기 위해 대형영정을 선두로 운구행렬이 세종로, 태평로로 이동하다. 한편 노

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영결식 추모인파고 서울광장은 물론 세종로 네거리에서 남대문까지 소공로에서 한국은행까지 울지로 일대를 가득 매운다. 노제에 앞서 사전행사로 방송인 김제동씨 사회로 노래패 '우리나라'가 '바보연가'를 가수 안치환씨의 '마른잎 다시 살아나' 등 조기를 부르고 양희은의 '상록수' 윤도현밴드의 '후회없이 너를 보낸다' 등 추모곡을 부른다. 이윽고 운구차량이 노제무대에 도착 도종환 시인 사회로 김명곤 전 문공부 장관의 개회선언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태평소 '조혼곡' 등이 연주되고 국립창극단의 '혼맞이소리' 국립무용단의 '진혼무' 춤을 추다. 이어 안도현 김진경시인의 조시낭송 안숙선 명창의 추모장이 있은 다음 참가자 모두가 '사랑으로'를 합창한다. 오후 2시 '술이술아 푸르른술아'와 '아침이슬' 등 조기가 울려 퍼지는 동안 노제를 마친 운구 차량이 서울역 쪽으로 이동하고 수천 개 만장과 수만대열이 그 뒤를 따른다. 운구차량은 추모인파의 발길에 막혀 오후 5시가 지나서야 남영동·용산구청·삼각지를 거쳐 수원 연화장으로 떠나나. 수천명의 오열속에 화장된 유골은 이튿날 새벽 2시에 봉하마을에 도착 정도원에 안치되다.

고인의 운구행렬이 서울광장을 떠난 다음 시민들은 광장을 지키겠다고 다시 모여들었고 경찰이 광장을 다시 경찰차벽 설치해 시도하다가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철수한다. 시민들은 태평로의 서울시의회 건물과 프레스센터 지점에서 경찰들과 대치해 있으면서 태평로와 서울광장 사수에 나섰고 국가인권위 앞에서는 대학생들이 경찰과 맞서 침투에 대비한다. 저녁 7시부터 1만여명이 촛불을 밝히며 범국민추모제가 열린다. 이정희 민주노동당원과 한아름 홍익대 총학생회장 등 추모발언과 광장사수발언이 이어지고 밤샘에 들어간다.

이북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최근 인공위성 발사와 핵실험이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적대행위는 정전협정의 파기로 된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한다. 담화는 "우리나라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이나 미사일기술통제제도의 밖에 있는 나라로서 국가의 최고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핵시험이나 미사일발사를 얼마든지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당방위조치는 그 어떤 국제법에도 저촉되는 것이 없다"며 "우리의 이번 핵시험은 천추에 용납될수 없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강도적행위에 대처하여 우리가 세상에 공개한데 따라 취한 자위적조치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경기도 여주군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농민본부' 등 통일농민단체들은 '통일쌀 모내기 행사'를 진행한다. 여주군 능서면 구양리 들녘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615농민본부 외에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국여성연대, 범민련, 한국진보연대, 통일광장, 민주노동당, 여주군농민회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모내기에 앞서 열린 통일쌀 풍년과 615공동선언 이행, 대북 쌀지원 법제화를 지원하는 고사에서 전농 경기

도연맹 이흥기 의장이 고추문을 낭독하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김상근 상임대표,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도숙 의장의 인사말이 이어 참가자들은 모내기 복장을 갖춰 입고 모내기를 시작해 약 600평의 논에 손모내기를 해 2시간여 모내기를 끝내고 점심식사와 뒷풀이 시간에는 "쌀로 통일될"이라는 구호로 즐거운 통일쌀모내기 행사마지막을 장식하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5월 '회원월례시사강좌'가 열린다. 이번 강좌는 회원 정창영감독의 다큐멘터리 '경계에 선 인생'을 관람하다. 많은 선생님들과 회원들이 함께 한 이 자리는 출소 장기수이었던 노춘 이구영선생님의 생의 한부분을 정창영감독의 눈으로 조망한 작품으로 선생님과 회원들에게 이구영선생님의 치열하셨던 생애를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음

경찰은 이날 5시 40분경쯤 시민들이 밤을 새워 지키려는 '서울광장'에 경찰병력을 투입 1000여명의 시민들을 폭력으로 몰아내며 2명을 강제연행하고 10여명을 크게 다치게 하다. 또한 광장을 다시 경찰버스로 명박성을 쌓다. 경찰은 덕수궁앞 시민분향소와 광장에 설치되었던 용산참사분향소를 무자비하게 철거하고 짓밟는 만행을 저지른다. 한편 오후 2시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등 정당사회단체들은 대한문 앞에서 '시민분향소 강제철거 서울광장 봉쇄구탄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 강제철거의 책임자 문책과 유가족에 사과할것을 촉구하다. 참가자들은 평화적인 시민의 추모행사를 탄압하고 사람이 모이는 것을 아예 원천 봉쇄하는 만인권적, 반민주적인 행패를 규탄하며 서울광장 개방과 시민들의 추모행사보장을 요구하다.

용산-범대위는 덕수궁 대한문 앞 인근에서 '용산참사 해결 촉구 정치검찰구탄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하고 공안탄압중단을 촉구하다. 참가자들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 이명박정부의 공안탄압 때문이라며 용산참사 희생자들과 노무현대통령은 닮았다고 주장하다. 용산철거민변호인단의 권영국변호사 배은심 유가협회장 노동전선의 조희주대표 등이 결의발언을 하다.